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338-01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Final Report on Quality Improvement Consulting for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2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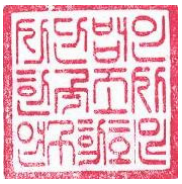
통계청
Statistics Korea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원	변 미리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연구원	변 종석 (한국조사연구학회)

자문위원

김 석호 (서울대학교 교수)
서 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 민규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호 (부경대학교 교수)

요약문

본 연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표 개선과 표본설계 변경에 대한 컨설팅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핵심적 국가 아젠다의 하나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단 간 사회갈등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여 변화 추이 분석하여 정부의 국민대통합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개발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주기로 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9년에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진단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으로, 조사문항의 개선과 조사표 구조 진단, 그리고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 결과와 연동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재조정에 관한 내용과 표본설계 대상과 크기 재조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표 컨설팅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에 조응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부문을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체계와 조응할 필요는 있으나 이 개편에 따라 『사회통합실태조사』 현재의 조사표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것은 조사의 시계열성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시계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사회조사〉 개편과 조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부문을 주관적 웰빙, 거버넌스,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역능성, 사회적 소통, 신뢰, 공정성, 관용성, 사회보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부문에서 포괄하는 문항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 조사표에서 '역능성'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을 '거버넌스' 부문으로 이동(문6부터 문12까지)하고 문18과 문19를 현재의 '사회참여' 부문에서 '역능성' 혹은 '사회적 소통' 부문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사표 문항별 경미한 수정사항과 관련해서는 부모님 교육 질문의 경우 문항 자체의 의미가 있으므로 질문의 난이도 체크 후 수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고, 문35의 '기관별 업무수행 평가' 문항은 질문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넷째, 신규 개발할 조사 문항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신규 지표로 포함된 '차별경험률'과 '준법수준 인식' 지표 측정을 위한 신규문항 개발과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지표와 '계층귀속감' 지표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신규문항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사회참여의 동기'나 '사회참여의 효능감'에 대한 신규문항 개발도 제안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의 사회지표〉와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제비교 모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함께 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진단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한 표본설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진단한 주요 결과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모집단은 2017년에 비해 가구원수 감소, 저연령층 감소와 고연령층의 증가 등 모집단이 변화하였고, 통계청의 사회조사와의 연계 분석 및 자료 연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는 저연령층 혹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으로 저연령층(만 13-18세)과 만 고연령층(만70~74세)을 동시에 확대하면 표본가구수가 약 10%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현행 층화 변수와 기준은 사회통합실태 조사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조사의 일관성 및 시계열 유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확대되더라도 조사 대상의 추가는 표본 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을 확대하여 전수 추출하므로 층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행과 동일한 층화 변수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변화된 모집단 특성, 어려운 조사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 표본 가구수의 증가는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표본 가구수의 확대 방안만을 고려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 방안으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동시에 확대해 현재 조사대상인 만 16-69세를 만 13-74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목표 표본크기는 가구수 기준으로 4,100가구가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추가되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목표 가구원 수를 결정한다면 가구원수가 적은 고연령층 관점으로 보면 목표 표본크기는 최대 4,400가구(고연령층 기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로, 조사대상 연령층의 목표(혹은 확보) 가구원 수를 결정한다면 추가 연령층의 가구원 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표본가구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넷째,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반영하여 중고교생(만 13-18세)의 조사표 개발과 비대면조사 기법의 개선, 확보 가능한 표본 가구원 수의 응답률을 높여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일관성 및 통계 안정화 방안 마련,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포함하는 신규 통계의 추가 작성 방안, 자료 공개 시 가구 관련 정보와 가구 가중값을 추가 제공하는 자료 공개 정보의 추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심층적인 연계 분석 및 자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유사성이 높은 사회조사와의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주요 내용 ····· 3
3. 연구 추진체계 ····· 4

제2장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진단 요약 ····· 7

1. 품질진단 개요 ····· 7
2. 품질진단의 주요 내용 ····· 9
3. 품질진단의 주요 제안 ····· 13

제3장 조사표 분야 컨설팅 ····· 15

1.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영역 ····· 15
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과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연계성 영역 ····· 18
3.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 25
4.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안 제안 ····· 34
5. 『사회통합실태조사』 활용성 제고 방안 ····· 47

제4장 표본설계 분야 컨설팅 ····· 50

1. 표본설계 진단의 목표 ····· 50
2. 표본설계 개선을 위한 진단 ····· 54
3. 표본설계 관점의 개선 방안 ····· 71
4. 품질개선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제언 ····· 80

제5장 요약 및 결론 ····· 88

부록1 전문가조사 질문지 ····· 91

부록2 사회조사(통계청)의 가중값 산출방식과 추정식 ····· 95

부록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가중값 산출 방식 ····· 96

부록4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추정식 ····· 97

부록5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 98

표 목차

〈표 2-1〉 사회통합실태조사(2018) 개요 ····· 9
〈표 3-1〉〈한국의 사회지표〉 제5차 개편 연구의 영역별 주요 내용 ····· 18
〈표 3-2〉〈한국의 사회지표〉 제5차 개편의 주요영역과 하위영역(지표) ····· 19
〈표 3-3〉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 영역 중 사회통합실태조사 관련 영역 ····· 20
〈표 3-4〉 사회통합실태조사 영역 ····· 20
〈표 3-5〉〈한국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영역 기존 하위영역과 개편(안) 비교 ····· 21
〈표 3-6〉〈한국의 사회조사〉의 사회통합 영역 지표와 〈사회통합실태조사〉 항목의 비교 ····· 22
〈표 3-7〉『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부문과 문항 번호 ····· 23
〈표 3-8〉『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 부문 재구성 안 ····· 35
〈표 3-9〉 OECD와 EU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 ····· 48
〈표 4-1〉 지역별 보통조사구 수 현황(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55
〈표 4-2-1〉 시/도별 조사구, 가구, 인구 수 현황(2018년 인총 기준) ····· 56
〈표 4-2-2〉 시/도별 조사대상 확대 연령대의 인구(가구원) 수 현황 ····· 57
〈표 4-3〉 시/도의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 현황 ····· 58
〈표 4-4〉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반영한 시/도의 평균 적격 가구원 수 현황 ····· 61
〈표 4-5〉 모집단 층화변수와 특성 ····· 65
〈표 4-6〉 서울과 경기의 권역별 해당 구/시군 현황 ····· 65
〈표 4-7〉 주요 공표 범위별 기대 상대표준오차(rse) ····· 69
〈표 4-8〉 저연령층(만 13-18세) 확대에 대한 표본크기의 제안 ····· 74
〈표 4-9〉 고연령층(만 70-74세) 확대에 대한 표본크기의 제안 ····· 76
〈표 4-10〉 저연령층(만13-18세)과 고연령층(만70-74세)의
동시 확대에 대한 표본크기의 제안 ····· 7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5
〈그림 1-2〉 연구수행일정 ····· 6
〈그림 3-1〉 조사부문 비교 :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합실태조사 ····· 24
〈그림 4-1〉 조사대상 확대와 통계 작성 영역의 구분(제안) ····· 82
〈그림 4-2〉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합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을 위한 구조적 개념(제안) ····· 85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조사의 배경

-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핵심적 국가 아젠다의 하나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단 간 사회갈등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여 변화 추이 분석, 국가 간 비교 분석, 정부의 국민대통합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개발함

○ 조사의 목적

-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공
-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본추출틀 개선

-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13세 이상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표본설계 방안

- 현행 표본설계 검토 및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13세 이상으로 확대할 시 최적 규모 산출 및 표본배분방안을 제시

○ 조사표 진단과 조사항목 개선

- 조사표 구조 및 내용 개선 필요
- 질문 문항의 개념 명확화

2. 연구 주요 내용

❑ 연구대상

○ 『사회통합실태조사』

❑ 연구내용

1) 조사모집단 변경 검토

○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개요

- (작성대상)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국민
- (작성항목)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각 부문별 특정 행태에 대한 사실적 내용 및 주관적 인식 조사

○ 개선 방향

- (작성대상)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13세 이상으로 확대 가능한지를 검토함
- (작성항목) 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른 순서배치 및 질문 항목의 명확화, 불필요한 질문의 삭제 등을 검토하여 조사표 구조 및 내용 개선

2) 표본설계(표본배분, 표본규모) 개선 방안

○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13세 이상으로 검토 후 이를 표본설계 적용

- (현행 표본설계 검토)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및 가중치 검토
- 현행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문항별 추정값과 표준오차, 그리고 상대표준오차 등을 계산하고, 표본배정에 사용할 변수를 선정함
- (표본규모 산출) 모집단 연령대 확대 시 현행 표본규모의 적절성 검토 및 층별 목표오차 수준을 고려한 최적의 표본규모 산출 및 표본배분 방안 검토

3) 분석방법에 대한 상세화 방안

○ 가중치와 추정량, 추정량에 대한 오차공식 등을 마련

- 확대 표본을 반영한 가중치 부여 방식
- 기본 추정식 제공 및 오차 추정을 위한 추정식 제공

4) 조사항목 및 조사표 개선

○ 조사문항 및 구성을 검토하여 구조개선, 조사문항 개선, 신규문항 등을 제안

○ 조사표로 인한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 현행 조사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정보부족, 조사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난해성, 조사표 구조에서 비롯되는 응답의 난이도 문제점 등(2019 정기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의 5차 개편에 따라 연관항목의 추가 혹은 보완에 대한 검토

5) 사회통합실태의 정체성과 활용성 제고

○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사회조사와 연동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정책영역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제비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3. 연구 추진 체계 및 일정

❑ 연구추진 체계

○ 본 과업은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기관 담당자 회의 및 방문, 조사연구, 통계자료분석, 시행기관과의 협의 등의 방법으로 수행됨



〈그림1-1〉 연구추진체계

❑ 전문가 자문회의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에 및 조사표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본 통계에 주된 이용자인 정부 부처 정책결정자 및 학술 분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1회)

○ 새로운 표본설계에 대한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 표본설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1회)

❑ 관련 기관 담당자 회의 및 방문

○ 현행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협력회의 및 방문 회의 개최

수행 단계	5월		6월				7월				8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연구 기획 및 문헌고찰 통계정보보고서 분석	■											
착수보고		■										
전문가 자문회의(1차)		■										
현행조사 데이터 분석		■	■	■								
모집단 확대를 반영한 표본설계 방안 마련			■	■	■	■	■					
중간보고							■					
품질개선 및 자료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	■	■			
조사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2차)										■		
최종 보고서 작성										■	■	■
최종보고												■

〈그림1-2〉 연구수행일정

제2장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진단 요약

1. 품질진단 개요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9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요

○ 통계품질진단은 국가 정책결정의 기초자료와 이용되는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여 국가통계 품질 관리에 적용해 국가통계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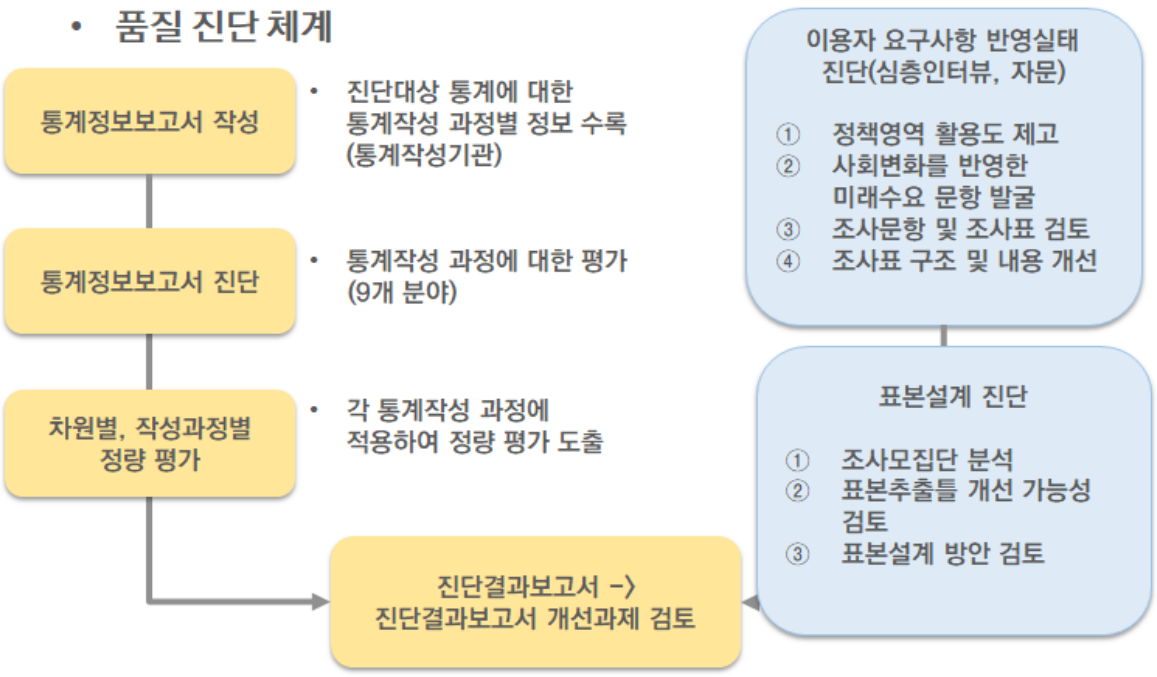
○ 사회통합실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자료가 정확한지, 시의성이 있는지, 유용한 통계인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용자들이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행

-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 6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진단

○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정기통계품질진단 과정은 다음과 같음

-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 자료 수집체계 점검
- 표본설계 점검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 품질진단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2. 품질진단 주요 내용

❑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 개요

〈표 2-1〉『사회통합실태조사』(2018) 개요

작성유형	• 조사통계
통계종류	• 일반통계
승인번호	• 417001
승인일자	• 2013월 7일 9일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
조사목적	•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공 •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 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조사주기	• 1년
조사대상 범위	•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69세 국민임
조사대상 지역	• 전국
전수/표본구분	• 표본
조사항목	• 10부문 77문항 -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23), 사회참여(2), 정치참여(8), 사회적 소통(7), 신뢰(4), 거버넌스(3), 공정성(3), 관용성(6), 사회보장(7), 개인 관련 사항(14)
자료수집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체계(위탁,용역)	• 위탁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준시점	• 매년 9월 1일
조사실시기간	• 매년 9월 1일~10월 31일(2개월)
공표주기	• 1년
공표시기	• 조사기준 년도의 12월
공표방법	• 전산망(인터넷)+간행물(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공표범위	• 전국

(다음페이지 계속)

〈표2-1〉『사회통합실태조사』(2018) 개요

주요연혁	•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갈등 실태조사; 공정성 실태조사 등에 대해 최초 실시 (2011년) •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2012년) • 총 7개 부문의 조사항목으로 개편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 실시(2013년 7월 통계작성승인) • 공정성 부문을 조사항목에 추가하고 표본규모를 5,000명에서 7,500명 으로 확대 (2014년 9월 통계작성변경승인) • 주관적 안녕감 및 역능성 부문을 조사항목에 추가하고 표본규모를 7,000명에서 7,700명으로 확대 (2015년 8월 통계작성변경승인) • 거버넌스 부문을 조사항목에 추가하고 표본규모를 7,700명에서 8,000명 으로 확대 (2016년 9월 통계작성변경승인) • 10개 부문 72개 조사항목에 대한 보완 (2017년 9월 통계작성변경승인) • 10개 부문 77개 조사항목으로 보완 및 표본 추출틀을 등록 센서스로 변경 (2018년 10월 통계작성변경승인)
모집단	•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내 모든 가구의 만 19~69세 이하의 전체 국민
표본추출틀	• 2016년 기준 등록센서스 조사구 중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
추출단위	•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여부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조사데이터 관리 진행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정보공개 민원을 신청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하고 있음
국제기구제출 여부	• 미제출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 각 통계표에서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시점)의 차이가 있음 - 지난 1년 :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지난 1주일 : 2018년 8월 25일 ~ 2018년 8월 31일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사회통합실태조사』품질진단의 주요 내용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및 자료수집체계

- 조사항목이 응답자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불명확한 내용으로 응답에 혼선을 주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자료수집체계 점검의 경우 응답자들은 정치성향 질문을 부담스러워하고,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학력 질문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답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의 경우 조사항목 중 신뢰도에 대한 질문과 정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응답 오류가 발생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자료수집 진단

- 전반적인 과정은 체계적임
- 조사원의 채용과 교육, 현장 조사 관리 체계 등 조사준비 및 현장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 통계정보보고서에 상세하게 수록
- 조사원별 파라데이터를 태블릿 PC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조사 관리를 수행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킴

○ 통계추정 및 분석 진단

- 가중치 산출에 대해 설계 가중치와 조정가중치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설명함
- 주요 모수 추정과 관련한 산출 산식,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도 통계정보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이상치 식별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

- 조사이용자들에게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조사대상기간 및 시점, 공표시기 및 일정, 시계열 비교성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통계공표에서는 2018년도 일정 공표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이용편의성을 저해함

❍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 및 기타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에 대한 주요 업무 및 근속연수, 교육과정 이수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통계작성에 필요한 조사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실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도 비교적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관리는 통계정보보고서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제기준 및 외국자료에 대한 검토 내용과 기타 연구문헌 및 국내외 보고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잘되고 있음

3. 품질진단의 주요 제안

❑ 조사표 개선 과제

○ 학력문항에 대한 개선

-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학력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가구원 현황 문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구원 현황 문항은 가구주용 조사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가구원에 대한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주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질문의 개념 구체성

- 일반 응답자들이 질문 항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주는 것이 필요함. 조사표 '문35번'의 질문 내용은 응답자들이 한 번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문35번'에 대한 조사지침서의 작성요령에서도 질문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설명할 필요 있음

○ 조사표 구성의 문제

-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된 응답표는 응답자들이 보기 쉽고 피로감을 낮출 수 있도록 음영처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타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과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표 구조 및 내용개선에 적용해야 함

❑ 표본설계 부문의 개선 과제

○ 조사대상 연령의 확대 문제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만19세 이상 만69세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19세 이상 만69세 이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조사 내용이 일반 성인의 사회환경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FGI) 실태에서 이용자들은 〈사회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연령대를 사회조사의 조사대상 연령대로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해볼 것을 권유
- 즉, 사회조사의 조사대상의 경우 만 13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사대상이 변화될 경우의 표본 수 검토

-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될 경우 응답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조사예산도 고려해야 함. 현재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는 2.0명(4천 가구 8천 명 조사)
- 만13세 이상 74세 이하로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될 경우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는 약 2.4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비용도 증가할 것임. 따라서 증가된 조사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

제3장. 조사표 분야 컨설팅

1.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영역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표 문항의 구성

○ 조사표는 10개 영역 77개의 질문으로 구성

조사부문	조사표 문항
기본사항	• 성별
	• 생년월일
	• 가구주와의 관계
	• 혼인상태
	• 교육정도
	• 일주일 간 일자리 보유 여부
	• 직업
	•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하고 있었던 일
	• 직장 내 지위
	• 직장구분
	• 월 평균 개인·가구 소득
	• 해당 지역 정주 기간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걱정·우울 정도) 3문항
	• 삶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안전성 (우리 사회, 시·군·구, 읍·면·동) 3문항
	•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
	•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 살고 있는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속감
	•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의 가능성(본인, 자녀)
	• 우리나라 정치 상황 만족도
	• 5년 후 정치 상황 전망
	•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
	• 5년 후 민주주의 수준 변화 전망
	• 우리나라 경제상황 만족도
	• 5년후 경제상황 변화 전망
	• 북한에 대한 시각
	• 성장 v.s. 분배 중 중요한 가치
	• 공동체 이익 v.s. 개인 이익 중 중요한 가치
	•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목표
	• 정책의 우선 순위 (2문항)

조사부문	조사표 문항
사회 참여	• 약자를 위한 도움에 대한 당위성 판단 • 약자를 위한 도움 행위가 내게 갖는 중요성 정도 • 개인의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사회단체 참여활동 정도 (정당, 노조,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조직) 9개 항목
정치 참여	•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 업무에 대한 관심, 사회단체 활동, 다른사람 의견 존중, 환경지향 상품 구매, 국가위기시 군복무의지 (8개항목)
	• 정부 정책에 관한 나의 영향력 • 정부의 일반시민 의견에 관한 관심 •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나의 인지 정도 •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일반사람의 인지 정도
	• 정치참여 활동 (주변사람과 이야기, SNS 의견제시, 정부·언론에 직접 의견제시, 서명운동, 탄원서 등, 시위·집회 참여, 민원, 불매운동) 8개항목
	• 투표 참여 (지방선거)
	• 투표 참여 (대통령선거)
	• 투표 참여 (국회의원 선거)
	• 지지 정당 유무
	• 본인의 이념적 성향
사회적 소통	• 우리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가족, 직장, 이웃, 세대) 4개 항목
	•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수준 (중앙정부와 국민, 국회와 국민, 지방정부와 국민, 지방의회와 국민) 4개 항목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과의 접촉 방식 (가족)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과의 접촉 방식 (가족 이외 사람)
	• 위기 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경제적·신체적·정신적 위기) 3개 항목
	• 개인의 감정상태 (외로움, 자살충동, 아무도 날 모름) 3개 항목
신뢰	• 일반적 인간관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 집단별 신뢰 정도 (가족, 이웃, 친구등, 처음만난 사람, 외국인) 5개 항목
	• 기관별 신뢰 정도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공기업, 군대, 노조, 시민단체, TV, 신문,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17개 항목
	• 기관별 청렴도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공기업, 군대, 노조, 시민단체, TV, 신문,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17개 항목
거버넌스	• 집단 간 협력정도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정부 상호 간,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전문가집단, 정부와 기업) 9개 항목
	• 공공서비스 경험 유무
	• 공공서비스 만족도
공정성	•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조사부문	조사표 문항
관용성 (사회적 포용)	•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 집단 구성원별 포용성
	• 집단 구성원별 포용성
	• 사회갈등의 원인
	• 우리 사회 항목별 갈등 정도
	•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 정도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사회보장	•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
	•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종류
	•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
	• 중병 발병 시 대처 가능 경제력 정도
	•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 본인의 5년 후 경제 상황 변화
	•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여부

❑ 조사표 컨설팅에서 다뤄야 할 개선책

○ ’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제기된 조사표 관련 항목

- 인구사회학적 변인 질문 :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 학력 질문 문항 조정 필요
- 문35번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믿음) 질문의 의도가 불분명
-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표 구조개선 등을 고려해야

○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과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항목과의 연계

○ 전문가 조사를 통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안

2. 〈한국의 사회지표〉 개선 체계와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연계성 영역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

○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 2019년 통계청은 삶의 질 학회에 의뢰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 이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양적, 질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상태를 종합적, 체계적 균형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것임
- 〈한국의 사회지표〉 제5차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3-1〉 〈한국의 사회지표〉 제5차 개편 연구의 영역별 주요 내용

영역	주요 개편내용
인구	저출산 및 다문화 반영한 신규지표 포함
가구 · 가족	지표분리 및 통합, 일가정양립 반영한 신규지표 포함
건강	하위영역 명칭 변경, 지표삭제 및 추가
교육 · 훈련	훈련 포함(영역 명칭 및 하위 영역, 지표 변경), 지표삭제 및 추가
노동	하위영역 재구성, 지표삭제 및 추가
소득 · 소비 · 자산	자산 포함(영역 명칭 및 하위영역), 지표분리/통합, 지표삭제 및 추가
여가	영역 명칭 변경, 하위영역 재구성, 지표삭제 및 추가
주거	영역 명칭 변경, 하위영역 재구성, 교통 관련 거시지표 및 경제지표 삭제, 주택가격 관련 지표 추가
생활환경	자연환경 제외(영역 명칭 및 하위영역), 거시지표 삭제 및 신규지표 추가
범죄 · 안전	범죄 강조(영역 명칭 및 하위 영역 변경), 기존 지표 재구성, 지표삭제 및 추가
사회통합	하위영역 재구성, 주관적 웰빙 및 사회복지 관련 지표 영역이동, 지표삭제 및 추가
주관적 웰빙	신규영역 신설, 기존 지표 영역이동, 신규지표 추가

○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체계의 영역별 구성

- 〈한국의 사회지표〉 제5차 개편의 영역과 하위영역(지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표3-2〉 〈한국의 사회지표〉 제5차 개편의 주요영역과 하위영역(지표)

영역	하위영역	영역	하위영역
인구	총인구	**소득·소비·자산**	소득
·	인구구성	·	자산
·	출생	·	소득분배
·	사망	·	소비와 물가
·	인구이동	·	저축과 투자
가구·가족	가족 및 가구 구성	·	조세와 재정
·	가족형성	**여가**	여가자원
·	가족생활	·	여가활동
·	가족규범	·	여가결과
건강	건강상태	**주거**	주택수급
·	건강영향요인	·	주택시장
·	보건의료체계	·	주거지불가능성
교육·훈련	교육·훈련 기회 및 자원	·	주거적절성
·	교육·훈련 과정 및 활동	**생활환경**	오염물질배출
·	교육·훈련 결과 및 성과	·	환경상태
노동	노동력	·	환경관리
·	일자리 분포	**범죄·안전**	범죄
·	노동시장 이행	·	형사사법활동
·	고용의 질	·	사법정의
·	노사관계	·	재해와 사고
·	임금근로자 소득		안전 인식 및 평가
·	근로시간	**사회통합**	시민성과 거버넌스
·	노동 비용 및 생산성	·	연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	포용
·	정서경험	·	·
·	삶의 의미와 보람	·	·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과 연동된 『사회통합실태조사』 항목

○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

-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 중, '사회통합' 영역과 새로 신설된 '주관적 웰빙' 영역이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과 연동되어 있음
- '사회통합'영역은 시민성과 거버넌스, 연대, 포용 등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적 웰빙' 영역은 삶의 만족, 정서경험, 삶의 의미와 보람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신설됨
-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 영역의 기존 구성 하위영역이던 정치참여, 사회참여, 역능성, 신뢰, 사회적 소통, 관용성, 사회보장(이 영역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영역임)의 7개 영역을 '시민성과 거버넌스', '연대', '포용' 등 3개 영역으로 재구성함

〈표 3-3〉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 영역 중 『사회통합실태조사』 관련 영역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사회통합	시민성과 거버넌스
	정서경험		연대
	삶의 의미와 보람		포용

○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 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비교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영역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3-4〉 『사회통합실태조사』 영역

조사 영역	문항수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23
사회참여	2
정치참여	8
사회적 소통	7
신뢰	4

조사 영역	문항수
거버넌스	3
공정성	3
관용성	6
사회보장	7

-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사회통합'영역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됨

〈표 3-5〉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영역 기존 하위영역과 개편(안) 비교

기존 영역 구분	신규 개편(안)
하위영역	하위영역
정치참여 사회참여	시민성과 거버넌스
역능성 사회적 소통 신뢰	연대
관용성 사회보장	포용

-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안의 '사회통합' 영역과 '주관적 웰빙'영역을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항목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개편된 사회조사 영역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영역은 직접적 비교는 어려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조사문항과 개편된 〈한국의 사회조사 지표체계〉의 '사회통합' 영역 하위 영역과 신규 개설된 '주관적 삶의 질' 영역을 비교함

〈표 3-6〉 〈한국의 사회조사〉의 사회통합 영역 지표와 『사회통합실태조사』 항목의 비교

	지표명	개편내용	『사회통합실태조사』 연관 항목
시민성과 거버넌스 ← 정치참여와 사회참여 부문	선거투표율	유지	문20
	정치적 역량감	유지	문20, 문23, 문24, 문25
	비선거 정치활동참여율	유지	문22
	시민의식	신규	문18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	유지	사회조사에서 포괄함
	정치 및 경제 전망	유지	문6~문12까지, 역능성 영역에 위치
	기관신뢰도	유지	문35
	부패인식지수	신규	문36
	사회갈등 인식	유지	문45, 문46, 문47, 문48
	여성국회의원 비율	유지	사회지표에서 포괄
	준법수준 인식	신규	사회통합조사항목에서 개발 필요
연대 ← 역능성, 사회적 소통 신뢰	사회단체참여율	유지	문19, 사회참여 영역에 위치
	자원봉사참여율	유지	문19
	기부참여율	유지	문19
	이타주의 가치관	유지	문18, 사회참여 영역에 위치
	국민자긍심	유지	문5
	지역사회소속감	유지	문5
	사회적 지원	유지	문31
	사회적 고립감	유지	문32
	대인신뢰도	유지	문33, 문34
포용 ← 관용성, 사회보장	여성 관리자 및 전문가 비율	유지	행정자료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유지	사회조사에서 포괄
	계층귀속감	유지	사회조사에서 포괄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유지	문43, 문44
	차별경험률	신규	사회통합조사항목에서 개발 필요
	공정성 인식	신규	문40, 문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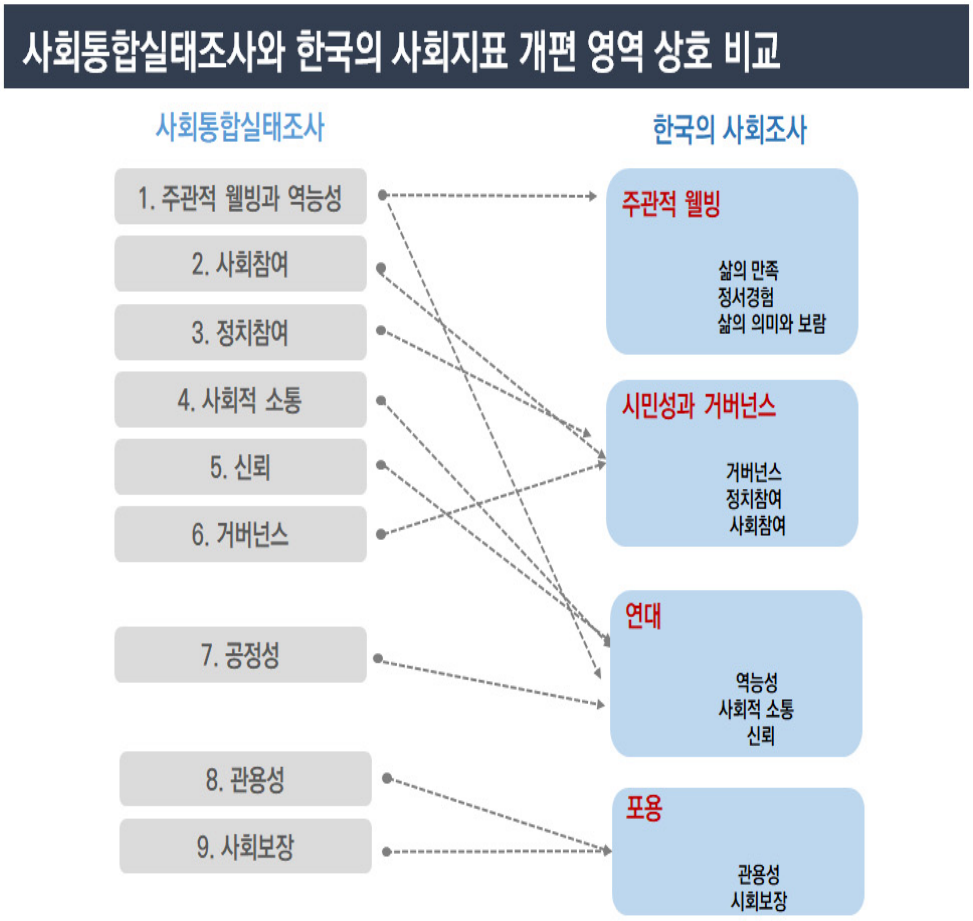
하위영역	지표명	개편내용	『사회통합실태조사』 연관 항목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	신규(사회통합 영역에서 이동)	문1-4
	삶의 자유	신규	문3
정서경험	긍정적 정서경험	신규(사회통합 영역에서 이동)	문1-1
	부정적 정서경험	신규(사회통합 영역에서 이동)	문1-2, 문1-3
삶의 의미와 보람	일의 가치 인식	신규	문1-5

〈표 3-7〉『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부문과 문항 번호

『사회통합실태조사』 부문	조사표 문항 번호
1.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	문1-1부터 문17까지
2. 사회참여	문18, 문19
3. 정치참여	문20부터 문27
4. 사회적 소통	문28부터 문32
5. 신뢰	문33부터 문36
6. 거버넌스	문37, 문38
7. 공정성	문39, 문40, 문41
8. 관용성(사회적 포용)	문42부터 문48
9. 사회보장	문49부터 문54
10. 개인관련 문항	D1부터 D17

❍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합실태조사』 항목 연계 관련 사항

- 〈한국의 사회지표〉는 기존 지표 체계를 개편해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 항목과 하위 영역을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 재구조화 되었음
- 다시 말하면 〈한국의 사회지표〉는 기존의 7개로 구성된 사회통합 영역을 시민성과 거버넌스, 연대, 포용 등 3영역으로 압축하였고, 주관적 웰빙 영역을 사회통합 영역에서 독립시켜 재구조화 하였음
- 위의 문항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실태조사』 가 초기 태생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개편 후의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 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개편된 〈한국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 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필요한 조사 문항을 포괄하고 있음. 다만 그 영역의 위치는 상호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영역을 현 상태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하위 영역과 어느 정도 맞추어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준법수준 인식'과 '차별경험률' 두 항목은 현재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후 조사문항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



〈그림3-1〉 조사부문 비교 : 한국의 사회지표와『사회통합실태조사』

3.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사회통합실태조사 』 질문지 구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실시

○ 전문가 조사 개요

-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접 실시
- 조사대상 : 정부부처의 정책 전문가와 학술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조사 내용은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과 활용성에 관한 것
- 조사표 구성에 관한 의견은 전체 조사표 문항을 제시하고 1) 조사표 구조 2)조사표 부문별 문항 적정성 3) 조사표 문항 구성도와 타당도 4) 신규문항 제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활용성 영역은 통계자료의 활용성 정도, 정책개발과정에서의 활용성, 조사 자료의 접근성(원자료와 보고서 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향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제비교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사일시 : 2020년 6월 29일 ~7월 6일까지
-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심층 인터뷰

○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자

정부부처 공직자	학계, 공공기관, 연구소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정OO 비서관 • 정책기획위원회 최OO박사	• 연세대학교 최OO교수 (사회학) • 시립대학교 이OO교수 (행정학) • 한국정보화진흥원 류OO박사(사회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OO박사(여성학)	• 국회미래연구원 민OO박사(지리학)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OO박사 (사회학) • 경기연구원 유OO박사 (사회학) • 국토연구원 박OO박사 (도시계획)

- 전문가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는 [별첨 1] 참고

❑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 『사회통합실태조사』에 관한 개괄 의견

- 조사가 10 여 년이 된 시점에서 조사문항의 대표성과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과 연관시켜 정리할 필요)
-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학술부문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다양한 개념을 대표하는 변수들이 포함된 조사이기에 변수들간의 상관, 인과관계 분석을 활성화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 있음
-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정책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브리프 형태의 요약본 만들어 활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 있음

○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영역에 대한 의견

-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둘 경우 이 영역의 문항수가 많음(현재 24개 문항)
-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에 포함된 조사 문항 중 이 영역을 대표하지 않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어 수정할 필요(문6~문12까지)
-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을 분리해야 할 필요

- '사회참여' 에 포함된 문항은 2문항인데, 문18의 경우 '사회참여' 측정보다는 '시민의식' 혹은 '이타주의 가치관'에 가까운 문항. 따라서 영역의 수정이 필요
- '사회참여' 영역의 문19는 '사회단체 참여율' 문항으로, 이는 사회참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는 제한적임
- '사회참여' 영역의 질문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시 추가된 시민의식 문항의 개발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참여'의 동기, '사회참여'의 효능감 등에 대한 추가 문항 개발 필요 제언

- ‘정치참여’ 부문에서 문20은 시민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문21은 정치적 효능감, 문22는 정치참여 문항, 문23부터 문27까지는 선거투표율과 지지정당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부문의 재구성 필요.
- ‘정치참여’ 부문의 문항들이 사회통합과의 연관성을 매개할 수 있는 신규문항 필요
- ‘정치참여’ 부문의 문항들은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에서는 ‘시민성과 거버넌스’ 영역에서 포괄

- ‘사회적 소통’에서 문28은 개인차원의 소통, 문29는 정부/국회/지방정부/지방의회와 국민간의소통을, 문30은 네트워크 수를 측정하는 문항, 문31은 사회적 지원을, 문32는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현재 ‘사회적 소통’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개념,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이슈들이 있음

- ‘신뢰’ 부문은 문33의 일반신뢰, 문34의 가족 포함 대인 신뢰, 문35는 기관신뢰, 문36은 기관청렴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이러한 구성은 ‘신뢰’ 부문에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부문(기관신뢰, 부패인식지수)이 포함되어 있어 응답자들이 영역 불일치로 인지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함

- ‘거버넌스’ 부문은 부처간 협력을 측정하는 문37과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경험 유무와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38로 구성되어 있어 ‘거버넌스’ 측정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문항이라는 의견 나옴. ‘신뢰’ 부문에 포함된 기관신뢰와 부패인식지수를 합해 거버넌스 영역을 재구성하는게 필요하다는 제언

- ‘공정성’ 부문에는 기관 공정성을 측정하는 문39, 사회현상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40, 공정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묻는 문41로 구성되어 있음. 공정성 부문은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에서 ‘포용’ 영역의 신규지표로 제안되어 있는 상태임. 따라서 『사회통합실태조사』 부문 재구성 과정에서 이를 독립된 부문으로 유지할지, 혹은 부문 재구조화 과정에서 통합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관용성(사회적포용)’ 부문에는 이타주의를 측정하는 문42,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는 문43, 문44와 함께 사회갈등과 관련한 인식 문항이 문45, 문46, 문47, 문48이 함께 포괄되어 있어 부문에 포함되는 문항 재조정이 필요함
- 또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관용성과 관련한 문항 개발에 대한 의견 제안 (부동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

- ‘사회보장’ 부문에는 개인의 사회보장 현황에 관한 질문인 문49, 노후 준비와 위기사항 준비정도를 파악하는 문50과 문51,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인 문52, 문53,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관한 문항인 문54로 구성됨. 문52와 문53이 ‘사회보장’ 부문 질문에 포함된 것은 어색하므로 부문 조정이 필요함
- ‘사회보장’ 질문에 개인의 사회보장 현황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회보장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안

- ‘개인 관련 사항’ 부문이라고 명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 부문 질문은 ‘정기 통계품질진단’에서 지적된 항목(부모님 교육상태 질문)을 개선해야 함
- 부모님의 직업에 관한 질문에서의 응답 난이도 검토
- D10 문항의 보기에서, 자영업자는 ‘해당없음’에 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에 종교문항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 D14문항의 ‘거주지역’의 범주 명확하게 할 필요

❑ 전문가조사 결과 종합표

-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음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Ⅰ.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걱정·우울 정도) 3문항	- 스트레스나 자살생각 문항 추가 - 최근 일정기간 동안의 정서적 경험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정 검토 - 기준의 검토 필요 : '어제'라고 한정한 것이 개인별로는 특정 사건에 대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난 1주일이나 요즘 정도로 수정 필요
	• 삶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안전성 (우리 사회, 시·군·구, 읍·면·동) 3문항	-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인식하는 거주지 근린(neighborhood)의 범위와 안전성을 묻는 문항이 추가 제안. - 지역 소속감에 대한 문항에서 '지역'의 범주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시군구/읍면동 등 지역 범위에서의 안전성 보다는 사회적 안전성(범죄, 해킹 등), 자연 재난(지진, 폭염), 바이러스 등 안전유형별 질문 가능
	•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	- 삶의 어떠한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유의 정도인지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추가 검토 - 역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의 추가가 필요
	•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 살고 있는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속감 •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의 가능성 (본인, 자녀)	- 행정구역 단위만이 아니라, 소속감에 있어서 생활권의 범주를 향후 어떻게 고려할지 검토 필요 - 자긍심, 소속감, 가능성 등 3개의 다른 개념이 한 지표로 묶일 수 있는 것인지?
	• 우리나라 정치 상황 만족도	- 현재와 5년후라는 미래를 각각 따로 측정하는 이유는? - 이 부분은 신뢰영역으로 이동하는 방안 고려
	• 5년 후 정치 상황 전망	- 이 부분이 왜 역능성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	- 민주주의라는 부분이 최근 정치적인 영역 이외에 일터 등의 조직 차원이 중요하게 논의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5년 후 민주주의 수준 변화 전망	- 이 변화의 전망은 막연하게 제시되거나 긍정 방향으로만 나타날 것
	• 우리나라 경제상황 만족도	
	• 5년 후 경제상황 변화 전망	
	• 북한에 대한 시각	- 이 영역에 포함되기에는 어색함 - 통일에 대한 견해 추가 가능 (사회통합 측면에서 통일은 주요 이슈) 예시: 한 국가로 완전한 통일, 일국양제, 연방국가 등 - 조사시점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성장 v.s. 분배 중 중요한 가치	- 성장과 분배에 대한 가치가 주관적 웰빙이라는 영역과 연결되는 부분이 적절한지, 문항을 이동 배치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
	• 공동체 이익 v.s. 개인 이익 중 중요한 가치	- 이 부분은 이 영역에 포함되기에는 어색함. 주관적 웰빙에 해당하지 않는 문항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재편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구성할 필요
	•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목표	
	• 정책의 우선순위 (2문항)	- 두 문항 간 차이 불명확 -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이 위의 성장 vs 분배나 공동체 이익 vs 개인 이익처럼 분명해보이지 않아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음 . 과거에 쓰던 문항이면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겠지만 상황이 급변했으니 현재와는 다른 지문을 주는 것이 나을 듯 - 안전 vs 인권(프라이버시) 같은 주제 - 타 국민을 도와주는 것 vs 국민 안전 우선 등 - 국가의 체면과 명분 vs 실리 등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II. 사회 참여	• 약자를 위한 도움에 대한 당위성 판단 • 약자를 위한 도움 행위가 내게 갖는 중요성 정도 • 개인의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사회통합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 사회참여 활동 정도를 적극성 뿐만 아니라 정기성, 횟수 등도 포함하는 방안 제안 - 이 항목이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가? - 이 항목은 다른 곳으로 이동 필요 - 사회참여가 아닌 주관적 인식의 문항임
	• 사회단체 참여활동 정도 (정당, 노조,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조직) 9개 항목	- 사회단체 참여 활용 정도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활동이나 참여 동기 또는 삶에서 이러한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의 조사 추가 필요 -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까지 포함할지 여부 검토 - 참여유무 뿐 아니라 빈도 측정 필요 - 글로벌 협력활동 참여 고려
III. 정치 참여	•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 업무에 대한 관심, 사회단체 활동, 다른사람 의견 존중, 환경지향 상품 구매, 국가 위기 시 군복무의지 (8개항목)	- 정치참여 부분에서 각 항목별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아래 문항에서 실제 참여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정치적 참여 유형에 대한 재검토 및 정치활동이 아닌 행정, 시민사회 활동 등에 대한 영역 및 문항 조정 필요함 - '국가위기 시 군복무 의지'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성별 구분 없이 응답받고자 함이라면 '군복무' 대신 다른 단어로 대체 필요 - 환경지향 상품 구매 항목이 정치참여에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 정부 정책에 관한 나의 영향력 • 정부의 일반시민 의견에 관한 관심 •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나의 인지 정도 •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일반사람의 인지 정도	- 인지도와 영향력 이외에 개선정도에 대한 인식 질문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지. 예를 들면, - 정부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 정부 정책이 나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추가 - 척도의 변화(5점 척도)
	• 정치참여 활동 (주변사람과 이야기, SNS 의견제시, 정부·언론에 직접 의견 제시, 서명운동, 탄원서 등, 시위·집회 참여, 민원, 불매운동) 8개 항목	- 온라인 청원 포함해야
	• 투표 참여 (지방선거)	
	• 투표 참여 (대통령선거)	
	• 투표 참여 (국회의원 선거)	
	• 지지 정당 유무	- 지지 정당 변화 여부 추가 질문
	• 본인의 이념적 성향	
IV. 사회적 소통	• 우리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가족, 직장, 이웃, 세대) 4개 항목	- 사회적 소통을 위한 창구가 충분히 있는지 혹은 소통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 추가 - 학생의 경우, 직장 구성원 대신 친구나 교우집단과의 소통 등이 포함 - 지역변수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소통
	•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수준 (중앙정부와 국민, 국회와 국민, 지방정부와 국민, 지방의회와 국민) 4개 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IV. 사회적 소통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	- 평일 하루라는 조사 단위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사회조사 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서 부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의 사회적 관계 관련 문항 참조하여 수정 검토요 - 주로의 의미가 접촉자 중에서 사람 기준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접촉 방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골라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 가장 오래 접촉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받거나 1-3 순위까지 응답 받는 방식 검토 필요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과의 접촉 방식 (가족)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과의 접촉 방식 (가족 이외 사람)	
	• 위기 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경제적·신체적·정신적 위기) 3개 항목	- 사람 수가 중요한 조사항목인지 검토 및 조정이 필요 - 도움을 받을수 있는 관계나 정도에 대한 문항 필요
	• 개인의 감정상태 (외로움, 자살충동, 아무도 날 모름) 3개 항목	- 사회적 소통보다는 주관적 웰빙 영역에 가까운 문항 - 외로움과 '아무도 날 모름'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아무도 날 모름' 대신 '너무 힘들다'로 수정 필요
V. 신뢰	• 일반적 인간관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 보기의 항목이나 전체적인 순서를 고려했을 때, '이웃'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좋을 것
	• 집단별 신뢰 정도 (가족, 이웃, 친구등, 처음만난 사람, 외국인) 5개 항목	
	• 기관별 신뢰 정도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공기업, 군대, 노조, 시민단체, TV, 신문,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17개 항목	-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신뢰보다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임. -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신뢰도처럼, 해당 집단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 언론매체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튜브 채널 추가
	• 기관별 청렴도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공기업, 군대, 노조, 시민단체, TV, 신문,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17개 항목	- 언론매체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튜브 채널 추가
VI. 거버넌스	• 집단 간 협력정도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정부 상호간,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전문가집단, 정부와 기업) 9개 항목	- 보고서 확인 결과, 여당과 야당간 협력을 제외하고는 평균값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가장 협력이 잘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고르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제안 - 거버넌스 차원에서 부처 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관계는 삭제 제안 - 중앙선관위보다는 국세청을 포함해야
	• 공공서비스 경험 유무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센터, 인허가 서비스, 인터넷 민원발급, 세무, 경창, 소방, 교육, 보건 서비스) 총 10개 항목	- 공공서비스 경험이나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나 영역이 혼재되어 있음 - 특히, 서비스 영역에 구분 및 재조정, 매우 빈도가 낮거나 오히려 누락된 복지 분야 서비스 등 추가되어야 할 내용 검토 필요 -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어떠한 의미인지 검토 후 수정 필요
	• 공공서비스 만족도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센터, 인허가 서비스, 인터넷 민원발급, 세무, 경창, 소방, 교육, 보건 서비스) 총 10개 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VII. 공정성	•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 총 6개 기관 평가	- 비영리기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 필요 - 6개 기관에 대해서만 공정성을 파악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 필요 - 행정기관을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나누는 것 제안 (중앙/지방정부 업무수행, 공정성 평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신뢰도나 청렴도의 경우 17개 항목으로 받고 있으나, 공정성에서는 언론이나 의료기관, 교육 기관 등이 빠져 있습니다. - 이러한 기관들도 얼마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아래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관 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공정성은 다르게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교육, 취업,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지역균형발전, 법집행, 정치활동, 성별대우, 언론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분배구조, 병역의무 이행) 총 12개 항목	- 공정성의 수준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제고나 저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추가 검토 필요 - 기회부여의 공정성에 대한 항목 추가 - '과정이 공정한지'를 물어보는 문항 추가 필요 - 최근 이슈인 부동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을 둘러싼 공정성 이슈도 포함 시킬 필요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평가 (공공정보 공개, 국민참여 확대, 행정절차 투명서, 공직청렴도, 고등교육 기회, 취업기회,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기득권 양보, 상류층 솔선수범, 중산층 확대) 총 10개 항목	- 10개 항목중 중산층확대는 다른 항목과 성격이 다른 문제임(해결이나 행동보다는 현상의 표현임
VIII. 관용성 (사회적 포용)	•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 복지가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 "저소득층"을 빼는 것이 응답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을 듯함. - 최근 논의되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여 단지 저소득층 복지 확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보편적 복지 또는 납세자 자신이 혜택 받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확대를 고려한 증세나 추가 납세 필요성과 동의 정도 등 조사 문항의 전면 개선이 필요
	•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 집단별 포용성 (장애인, 조손/한부모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총 6개 집단	-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 안에 노동자는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임. 그리고 이민자 집단에 따라 포용성이나 거리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별도로 구분하고, 결혼이민자 등을 따로 포함시키는 방안 - 미혼/비혼 부모 및 자녀에 대한 포용 추가 제안
	• 집단별 자녀배우자로의 포용성 (장애인, 조손/한부모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총 6개 집단	- 성소수자 항목 추가
	• 사회갈등의 원인	- 갈등의 원인에 대한 범주화 필요
	• 우리 사회 항목별 갈등 정도 (계층간, 보수/진보간, 근로자와 고용자간, 수도권과 지방간, 개발과 보존간, 고령층과 젊은층 간, 남녀간, 종교간, 내국인과 외국인간) 총 9개 문항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항목 추가 - 건물주 세입자 - 집주인 세입자
	•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 정도 (교육계, 국회, 기업, 노동조합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정부, 종교단체) 총 9개 집단	- 다른 문항들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항만 5점 척도로 구성한 특별한 이유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혹은 가장 필요한 부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나을 듯
IX. 사회보장	•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	- 연금과 보험, 노후소득보장 중심으로 조사문항이 구성된 부분을 조정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어려움 또는 준비 여부가 아니라 국가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형평성이나 영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항목 조정이 필요함 - 개인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을 묻는 문항도 들어가면 좋을 것임 (예,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문항들)
	•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종류	- 공적 연금 플러스 사적연금도 파악할 필요
	•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	-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가?란 질문으로 수정
	• 중병 발병 시 대처 가능 경제력 정도	- '경제력 정도'라는 질문 문항보다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란 질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
	•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 본인의 5년 후 경제 상황 변화	- 코로나 등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매우 빠른 시간 동안 변화를 겪고 있음. 단기간 내의 경제상황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변경하거나 경제상황의 변화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물어보는 것도 좋을 듯
	•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여부	
X. 인구사회학적 특성문항	• 인구사회적 특성 문항 관련	- 부모님의 교육과 직업 문항과 관련하여, 해당 나이 때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는 선택할 보기가 없음 - 종교문항 추가
	• 생년월일	
	• 가구주와의 관계	
	• 혼인상태	- 외국의 경우 비혼, 전배우자등 법적인 결혼상태 이외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파트너를 맺는 방식을 파악하는 질문 보기의 다양화 필요 - 비혼 파악할 필요
	• 교육정도	
	• 일주일 간 일자리 보유 여부	
	• 직업	
	•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하고 있었던 일	
	• 직장 내 지위	
	• 직장구분	
	• 월 평균 개인·가구 소득	
	• 해당 지역 정주 기간	- 거주 지역 범위 명확화 필요

4.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안 제안

❑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과 조응을 위한 조사표 부문의 재구성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체계와 조응할 필요는 있으나 개편에 따라 현재 조사표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것은 조사의 시계열성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부문의 재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과 일정정도 조응하면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임

○ 『사회통합실태조사』 전체 부문을 1. 주관적 웰빙, 2. 거버넌스, 3.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4. 사회적 소통, 5. 신뢰, 6. 거버넌스, 7. 공정성, 8. 관용성, 9. 사회보장의 9개 부문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

- 〈표3-8〉와 같이 제시한 이유는 현재의 부문은 〈한국의 사회지표〉 부문과의 연관성에서 낮은 부분이 있으며(주관적 웰빙과 역능성이 함께 있는 부분), 거버넌스 부문의 위치가 시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부문과 함께 있으면 영역 포괄성이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함
- 시민참여와 정치참여를 하나의 부문으로 묶은 것은 현재 사회참여 부문이 2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에서 이질성이 나타나므로 이를 정치참여 문항과 묶어 '참여'의 현황을 통해 시민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제안
- '주관적 웰빙'에서 분리되어 나온 '역능성' 부문은 '신뢰' 부문 다음에 배치하여 사회적 소통, 신뢰, 역능성 부문을 합해 우리사회의 '연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표 3-8〉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된 표로 제시한 것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현재 부문 구성과 『사회통합실태조사』 재구성안, 그리고 〈한국의 사회지표〉 부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제안된 재구성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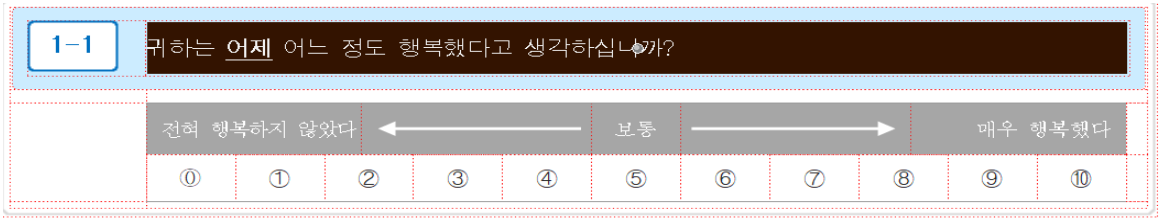
〈표 3-8〉『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 부문 재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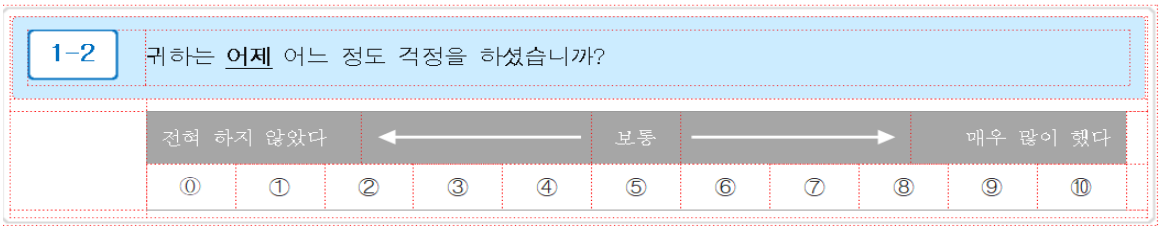
『사회통합실태조사』 현재 부문 구성	**『사회통합실태조사』 재구성안**	〈한국의 사회지표〉 부문과 비교
1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1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2 사회참여	**2 거버넌스**	시민성과 거버넌스
3 정치참여	**3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4 사회적 소통	**4 사회적 소통**	연대
5 신뢰	**5 신뢰**	
6 거버넌스	**6 역능성**	
7 공정성	**7 공정성**	포용
8 관용성(사회적 포용)	**8 관용성(사회적 포용)**	
9 사회보장	**9 사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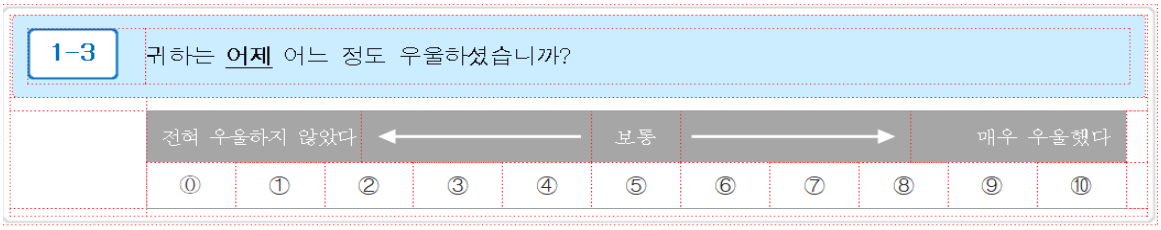
❑ 『사회통합실태조사』 부문별 포괄 문항의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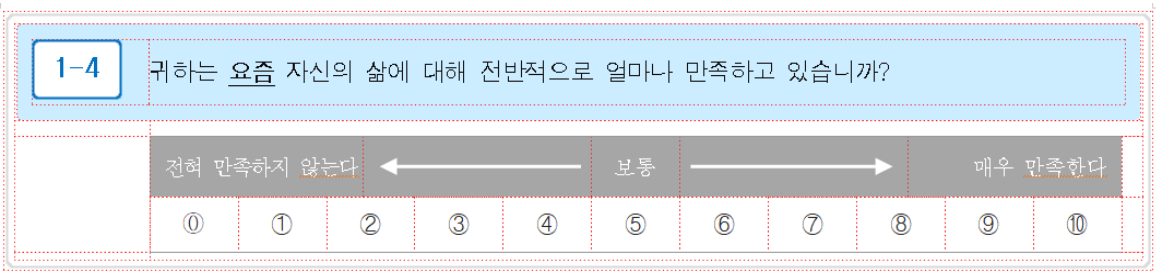
○ ‘주관적 웰빙’ 부문에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만 포함할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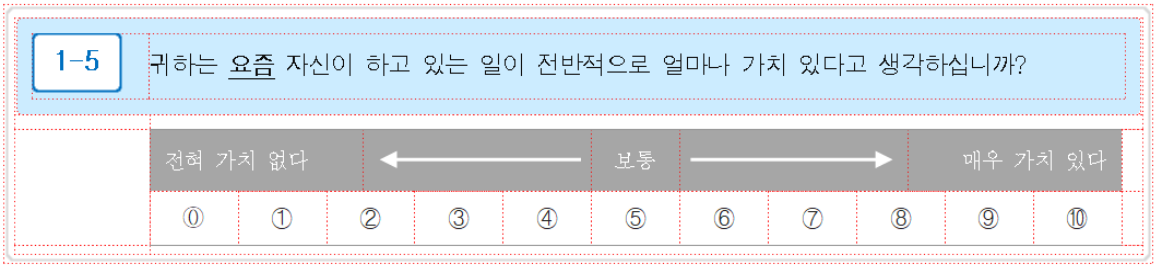
- 〈한국의 사회조사〉는 개편을 통해 ‘주관적 웰빙’ 영역을 독립시켰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에 관한 전문가 조사에서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이 함께 부문을 구성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문항수가 23개로 가장 많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전문가 조사와 자문회의에서 많이 나옴
- 따라서 〈한국의 사회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상호 구분되는 영역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영역을 재조정한다면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영역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주관적 웰빙’에 해당하는 6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 부문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관적 웰빙’ 부문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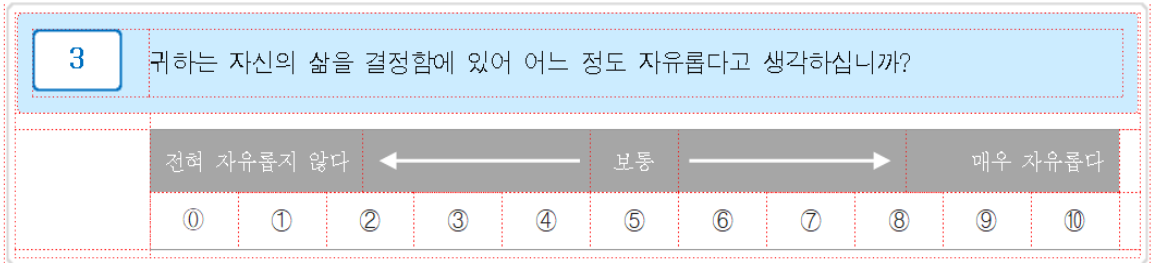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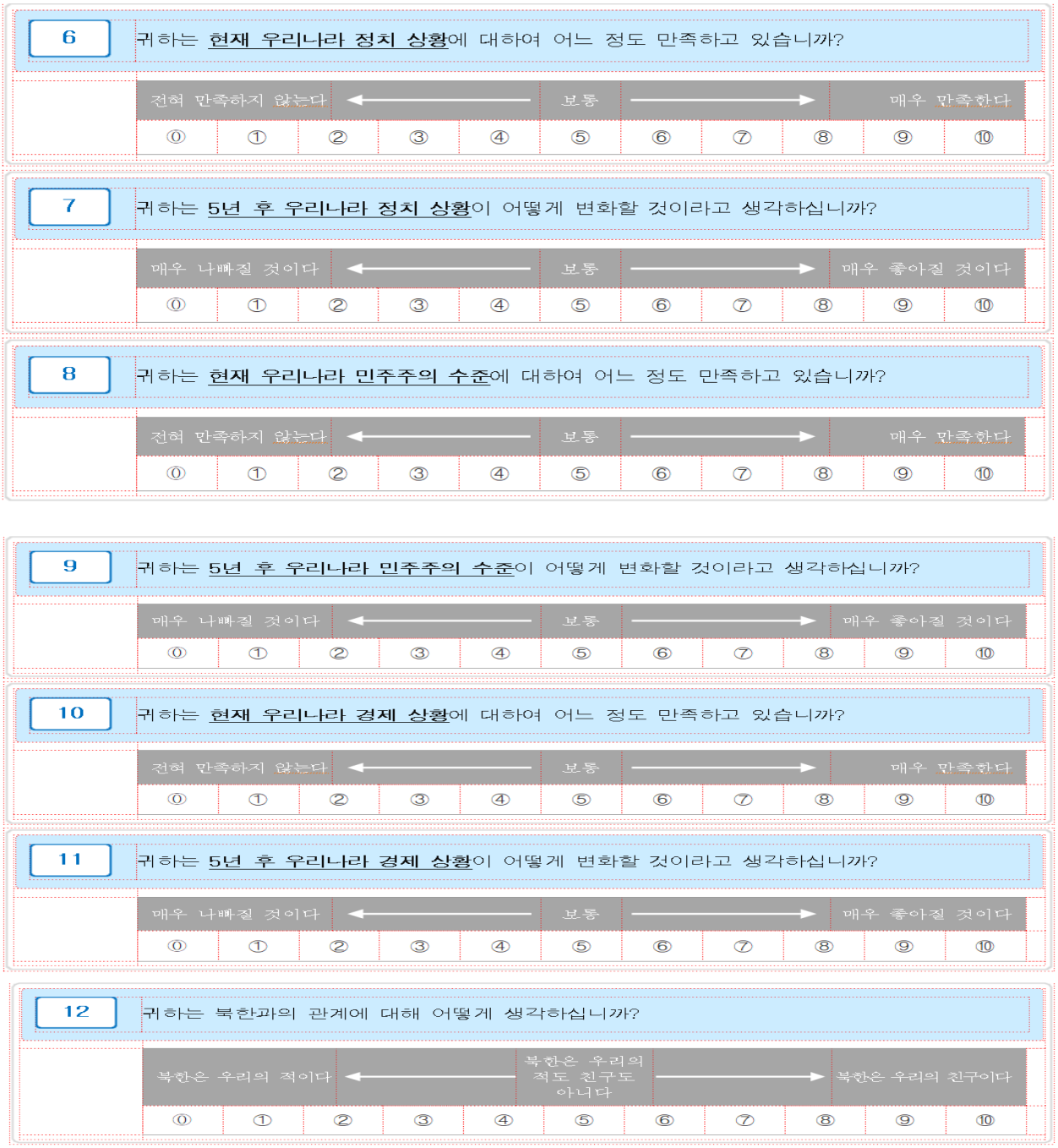






○ 현 조사표에서는 **‘정치 및 경제전망’**이 ‘역능성’ 부문에 포함되어 있어 (문6부터 문12까지) 이를 **거버넌스 영역으로 이동** 배치 필요

- 거버넌스 영역으로 이동 배치가 필요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정치 및 경제전망에 관한 질문들은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활용된다는 기존 논의를 고려해 항목 이동을 제안함



○ 문18(이타주의 가치관)과 문19(사회단체참여율) 문항의 영역 이동 제안

- 이타주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18과 사회단체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문19는 현

조사표에서는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두 문항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음)

-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지표에서는 이 두 항목이 '연대'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질문 문항의 하위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문18과 문19 문항은 '**역능성' 혹은 '사회적 소통**' 부문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

18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19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항 목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정당	①	②	③	④	⑤
(2)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⑤
(3)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4)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5)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7) 동창회, 향우회	①	②	③	④	⑤
(8)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 문20을 '시민성' 측정 항목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

- 현재 정치참여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20(아래 질문 문항 참조)은 정치참여를 측정하는 항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성' 측정이 가능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에서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으로 '시민성과 거버넌스'가 포함되면서, '시민성' 관련 지표 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문20 문항을 '시민성' 측정 문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20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한다 * 군인으로서 복무 등 직접적 참여뿐만이 아닌, 물자 수송, 간호 등의 간접적 참여 또한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30, 문31, 문32문항을 **역능성 부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문30은 사회연결망 수를 측정하고, 문31은 사회적 지원 가능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문32는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는 문항임(세 문항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음)
-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EU의 Social Quality 프레임에 따르면 역능감은 인적 자본 역량과 함께 사회적 자본 역량을 포괄하는 것임
- 따라서 문30, 문31, 문32 문항을 '주관적 웰빙'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부문을 구성하는 '역능감' 부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30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접촉이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귀하와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명 이상

→ **30-1**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① 전화
② 우편
③ 인터넷
④ 대면
⑤ 문자(SMS)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③ 인터넷 →
① 이메일
②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③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등)
④ 블로그
⑤ 카페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19명
⑥ 20~49명
⑦ 50명 이상

→ **30-2**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① 전화
② 우편
③ 인터넷
④ 대면
⑤ 문자(SMS)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③ 인터넷 →
① 이메일
②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③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등)
④ 블로그
⑤ 카페

3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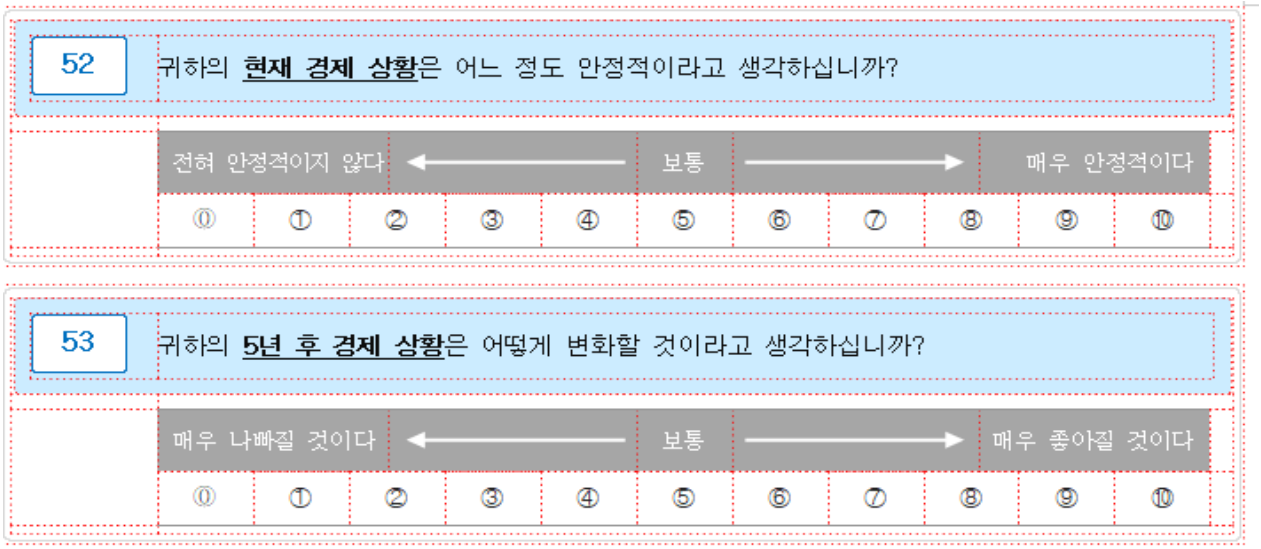
항 목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롭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 문52과 문53의 부문 이동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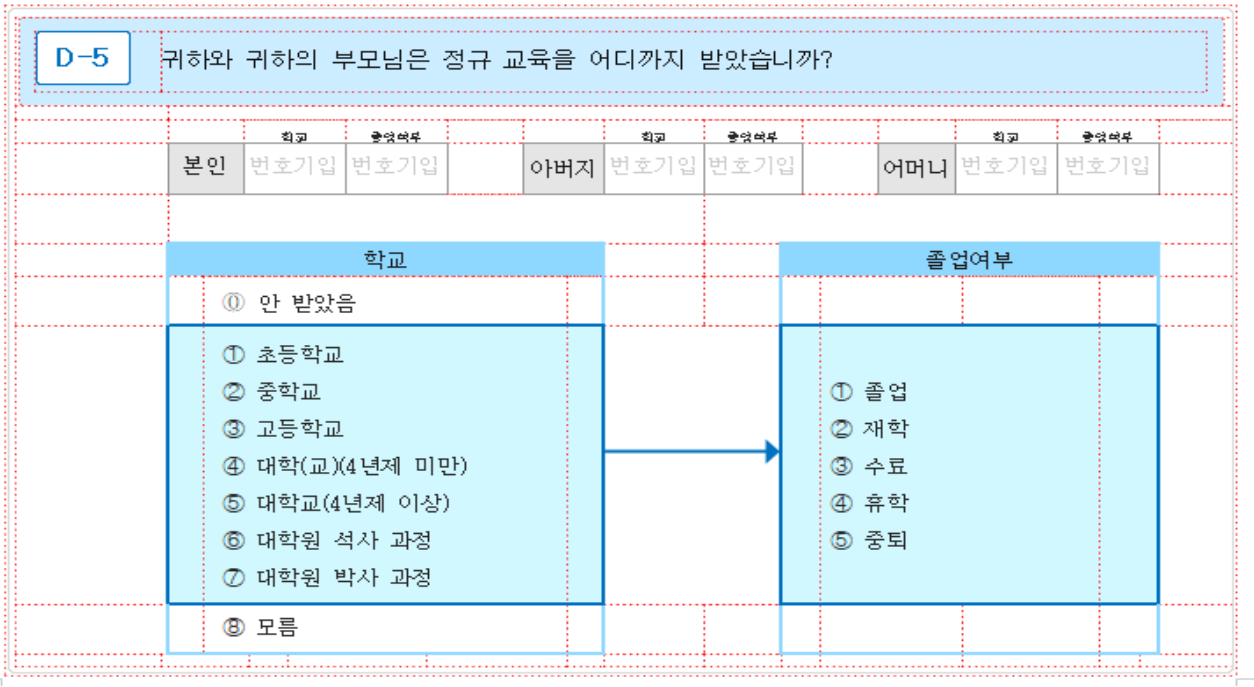
- 거버넌의 현재의 경제상황 질문과 문53의 5년 후 경제상황 질문(아래 질문문항 참조)이 사회보장 부문에 포함되어 있어 부문 변경 검토 필요
- 이 두 질문은 특정 부문에 속하는 질문의 성격보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에 관한 질문이므로 개인관련 사항 질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문항별 수정 사항

○ D-5 질문의 삭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제안

-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개인관련사항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D-5 질문 (다음 페이지 질문 참조) 의 응답 난이도를 고려할 때 삭제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제안
- 예를 들어 60대 응답자가 부모님이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대해 응답하기는 쉽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사회적 지위 재생산' 맥락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항이므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움
- 실사과정에서 응답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개인관련 사항에 종교 문항 포함 제안

- 최근 우리사회에서 종교집단 간 이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종교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개인의 가치와 행위, 태도를 파악하는 특성을 담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종교'문항을 조사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종교 문항 조사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문항을 차용하는 것을 제안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종교 문항은 다음과 같음

문)종교가 있습니까?
(⑨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종교명을 기입합니다)
❶ 있다
→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기독교(천주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천도교
⑦ 대순진리회 ⑧ 대종교 ⑨ _____
❷ 없다

○ 문35의 '기관별 업무수행 평가' 문항 수정 검토 필요

- 문35 (다음 페이지 질문지 참조)는 17개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이나 질문의 척도는 ① 전혀 믿지 않는다 ② 별로 믿지 않는다 ③ 약간 믿는다 ④ 매우 믿는다로 구성되어 신뢰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바뀌어 있음
- 문35가 17개 기관의 신뢰도 평가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업무 수행도 평가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기관 신뢰도' 평가 문항이면 질문 수정이 필요
- 기관 신뢰도 평가를 위한 질문은, "귀하는 다음 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수정해야 함
-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 국민들이 17개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기관신뢰도 평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35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항 목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2) 국회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검찰	①	②	③	④
(5) 경찰	①	②	③	④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①	②	③	④
(7) 공기업	①	②	③	④
(8) 군대	①	②	③	④
(9) 노동조합단체	①	②	③	④
(10)시민단체	①	②	③	④
(11)TV방송사	①	②	③	④
(12)신문사	①	②	③	④
(13)교육기관	①	②	③	④
(14)의료기관	①	②	③	④
(15)대기업	①	②	③	④
(16)종교기관	①	②	③	④
(17)금융기관	①	②	③	④

❍ 문40 문항에 하위 항목 추가 제안

- 문40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교육기회부터 취업,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기회, 지역균형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 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분배구조, 병역 의무 이행까지 모두 1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 페이지 질문지 참조)

-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 이슈가 크게 부각 되는 가운데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공정성 이슈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우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이 새롭게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12) 다음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켜 13) 부동산 자산 형성 기회 14)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40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2) 취업 기회	①	②	③	④
(3) 과세 및 납세	①	②	③	④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①	②	③	④
(5) 지역균형발전	①	②	③	④
(6) 법 집행	①	②	③	④
(7) 정치 활동	①	②	③	④
(8) 성별에 따른 대우	①	②	③	④
(9) 언론 보도	①	②	③	④
(10)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①	②	③	④
(11)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①	②	③	④
(12)병역 의무 이행	①	②	③	④

❑ 『사회통합실태조사』 신규 조사문항 개발 검토 필요

○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신규 지표와 관련한 문항 개발 필요

- ‘차별 경험률’과 ‘준법수준 인식’ 지표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에서 ‘사회통합’ 영역의 신규지표로 제안됨
- 신규지표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신규 조사문항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포괄할지를 검토하여 신규 문항 개발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차별경험률’ 지표의 경우 사회통합과 관련한 주요 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지표를 측정할 조사항목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관련 조사항목은 통계청 승인 통계조사인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조사표를 참고하여 조사문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아래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차별경험률 조사문항 참조)

1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었다면, 어떤 차별인지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 유형*

① **신체적/언어적 차별** : 폭행, 위협, 놀림이나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② **고용 관련 차별**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③ **재화/용역 차별** :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당하는 거절이나 불이익
④ **사회적 차별** : 결혼, 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항 목	19-1 차별 경험				19-1-1 차별 유형* (해당사항 모두선택)			
	해당 없다	없다	있다		신체적/ 언어적	고용 관련	재화/ 용역	사회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3) 종교를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4)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5) 장애를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①	②	③	‘③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7)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8)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9)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1)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2)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3)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4)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5) 출신지역을 이유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④

- ‘공정성 인식’ 지표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에서 신규지표로 제안되었음
- 이 신규지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문40, 문41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조사문항을 신규지표의 조사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

-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신규 지표로 제안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지표와 '계층귀속감' 지표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신규조사 문항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이 지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포괄하고 있는 바, 조사주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신규 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 '사회이동 가능성'과 '계층귀속감' 관련 질문은 아래와 같이 개발 가능함

■ *사회이동 가능성*

문.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문.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 *계층귀속감*

문. 귀하는 귀하의 지위가 사회,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참여 관련 신규 질문 개발 제안

- 전문가 조사와 자문회의 등에서 제안 된 항목으로, 오늘날 시민들의 사회참여 여부 뿐 아니라 '사회참여의 동기'나 '사회참여' 이후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참여의 효능감' 등의 항목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음
- 이러한 문항의 개발을 통해 '사회참여' 부문의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해 질 수 있음

5. 『사회통합실태조사』 활용성 제고 방안

❑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

○ 〈한국의 사회지표〉 발전 과정에서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출현했다는 태생적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조사〉와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있음

○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체계와 연동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부문을 재조정한다면 향후 분석 내용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분석 단위 다양화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현재 성, 연령등의 인구적 특성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고 있음
- 최근 우리사회의 통합과 갈등 이슈들이 지역성을 매개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들임
-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단위 확장 필요

○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의 사회조사〉 데이터 연동 가능성 검토

- 〈한국의 사회조사〉와 데이터 연동을 통한 분석단위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한국의 사회조사〉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변수 비교를 통한, 인과성 혹은 보완적 설명 가능한 문항을 발굴할 필요 있음

❑ 『사회통합실태조사』 국제비교 모듈 개발의 필요성

○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 국제비교 파트 포함 여부 검토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합, 사회자본 축적 정도, 사회적 역량 등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공식 승인 통계임

- 따라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국제사회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위상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국제비교 문항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보고서에 국제비교 파트가 포함된다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제모듈 개발 가능성 검토 제안

- 한 사회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사문항은 OECD, UN, 유럽의 국가 등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표3-9〉 참조)
- 현행 조사표에서 국제비교 가능한 문항은 주관적 웰빙, 정치참여, 신뢰 등의 문항들임
- 이를 참조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문항 중 국제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선택하여 '사회통합 국제비교'로 파일럿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
- 다만 몇 개의 문항만으로는 국제비교 현황과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제비교 모듈의 개발이 필요함

〈표 3-9〉 OECD와 EU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

유형	지표 예들
OECD「Society at a glance」 사회통합 영역 지표구성 (2019년)	life satisfaction confidence in institutions violence against women voting online activities
EU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	사회적 관계의 존재여부 사회·정치적 활동과 참여 사회적 관계의 질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정책 활용성 제고

○ 현 정부의 포용국가론과 조응하는 정책 활용성 제고 필요

- 현 정부의 '포용국가론'은 정치적 포용, 사회적 포용, 경제적 포용과 글로벌 포용의 4개 부문 포용성을 국정의 주요 지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영역별 포용성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포용성 문항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정 모니터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사회통합실태조사』 브리프 작성 제안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오늘날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그 현황을 진단하는 활용가치가 높은 보고서임
-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 할 때, 보고서와 함께 요약 형태의 브리프를 작성하여 같이 출판한다면 정책입안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4장 표본설계 컨설팅

본 장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 관리 관점에 대한 진단하고, 품질 진단 결과를 반영해 통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표본설계 진단의 목표

1) 표본설계 개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관리 관점의 진단을 하기에 앞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 설계 방법, 가중값과 추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목표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조사모집단: 2017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
표본추출틀	○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만 대상 - 해당 조사구 중 조사가 어려운 섬지역과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은 제외

(2)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사구 내 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가구원 전수조사
표본추출방법	① 층화 : - 시/도(21개 권역), 동/읍면부, 아파트/일반 조사구로 층화 ② 표본추출방법 : 다단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 · 1차(psu) : 조사구 →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ssu) : 조사구 내 10가구 → 계통추출 · 최종조사단위 : 표본가구 내 적격 가구원 전수조사
표본규모 산출식	○ 전국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상주 가구원 - 표본크기 : 8,000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55%p, 설계효과 1.41 고려 시 1.84%p)
표본배분방법	○ 상대표준오차(CV)와 조사를 위한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조정 - 시도 : 조사구의 가구수 기준 제곱근 비례배분 - 동읍면부, 주택유형(조사구특성) : 비례배분

(3) 가중값과 추정(부록 참조)

가중값	○ 설계가중값, 무응답 보정 및 사후층화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최종 가중값 부여 - 가구 가중값 : 가구원수별 분포 고려, 미제공 - 가구원 가중값 : 성별, 연령대별 기준
추정	○ 복합표본조사 분석 기법 적용

목표 모집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 및 만 19~69세의 가구원이고, 조사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가 어려운 섬조사구, 기숙시설 및 특수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조사구에 속하는 일반가구 및 일반가구에 상주하는 만 19~69세의 가구원이다. 현행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명부를 사용한다.

표본설계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① 층화는 광역시도, 동읍면부, 주택유형(조사구특성)을 층화 변수로 선정하고, 1차 층인 지역은 21개 권역으로 층화한다. ②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관점에서 크기를 산정하는 데, 95% 신뢰수준에서 목표 상대표준오차 1.55%p(설계효과 1.41을 고려하면 1.84%p)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목표 표본가구 4,000가구를 결정하고, 표본가구내 평균 2명의 적격 가구원을 산정하여 가구원 8,000명을 목표 표본크기로 결정한다. ③ 표본 배분은 17개 시도별로 가구수의 제곱근 비례배분으로 표본을 배분하고, 2차 층인 동읍면부x주택유형별로 비례배분으로 표본을 배분한다. ④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이다. 층별로 표본 가구 및 가구원을 추출하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의 가구수 기준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고,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별 10가구를 계통추출한다. 조사단위인 가구원은 표본 가구 내 만 19~69세 적격 가구원을 전수 추출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추정을 위한 가중값 부여 방식과 추정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① 가중값은 추출 과정을 반영한 설계 가중값, 무응답을 보정하는 무응답보정계수와 사후층화조정계수를 반영해 최종 가중값을 부여한다. ② 가중값은 가구 가중값을 산출하고, 적격 가구원의 참여 여부를 고려한 가구원 가중값을 부여한다. ③ 자료는 개인(가구원)단위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료 공개 시 가구 가중값은 공개하지 않고 가구원 가중값만을 공개한다. ④ 모수 추정식은 가중값을 반영한 복합 표본조사 자료분석 기법으로 추정하며, 모비율, 모분산 및 상대표준오차 등 모수 추정식을 제공한다(가중값과 추정식은 부록 참조).

2) 표본설계 진단의 목적과 개선의 구체적인 목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대한 정기품질진단에서 제시된 표본설계 관점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실태조사』 신뢰성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한 조사모집단 변경 및 표본설계, 조사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둘째, 조사대상 연령대 확대(만19세 이상 → 만13세 이상)에 따른 표본추출틀 개선.

셋째, 현행 표본설계 검토 및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13세 이상으로 확대할 시 최적 규모 산출 및 표본배분방안을 제시함.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조사(통계청)와 연계된 조사로 사회조사를 보완하는 다양한 분야의 조사 자료를 수집하도록 승인된 통계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대한 표본설계 관점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대한 조사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대상	○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
조사단위 및 규모	○ 개인 (목표가구: 약 18,576가구) -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7,336가구(조사구당 16~20가구)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대한 모집단과 표본설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모집단 : 조사가 곤란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3세 이상
표본추출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 조사구(1, A) - 일반조사구 중 조사가 어려운 섬지역과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은 제외 -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은 조사모집단 대비 전국 기준 조사구 99.8% 수준임

(2) 표본설계 개요

표본추출 방법	- 27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
추출단위 및 추출과정	- 추출 단위 : (1차) 조사구 - (2차) 가구 - (3차/전수추출) 가구원 - 표본 조사구를 추출한 후, 표본조사구의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랜덤으로 최초가구를 설정하고, 그 가구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16~20가구 조사
표본규모 산출식	- 주요항목의 상대표준오차(CV)를 전국 1.5%, 시도 6~10%를 목표로 함. - 전국 1,548개 조사구, 27,336가구를 표본가구로 결정 (목표 가구 : 18,576가구)
표본배분 방법	- 층별 상대표준오차(CV), 업무량과 예산을 고려해 최종 조정

(3) 가중값과 추정(부록 참조)

가중값	○ 설계가중값, 무응답 보정 및 사후층화조정계수를 고려하여 최종 가중값 부여 ○ 사후층화가중값 - 가구주의 성, 연령대별로 시도별 추계 가구수 기준 - 캘리브레이션 방법 : 사후층화 또는 반복비례가중법(raking 방법) 등 ○ 가중값 기준 - 가구 가중값 - 가구원 가중값 : 성, 연령대별 시도별 추계인구 기준
추정	○ 복합표본조사 분석 기법 적용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정기품질진단에서 품질 개선의 목적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연계분석 및 자료 연계를 위해 조사대상을 일치하도록 적격 가구원의 조사대상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의 개선이다. 즉,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은 적격 가구원의 조사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표본추출틀 개선 및 표본설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의 개선을 위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조사목표 및 통계 산출을 위한 현행 표본설계의 적절성 평가 및 개선

그러므로 본 과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조사모집단 확대를 반영한 표본설계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확대 방안 : 저연령층(만 13~18세) 및 고연령층(만 70~74세, 혹은 70대)

둘째, 조사대상 확대를 반영한 표본크기 검토 및 제안

셋째,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조사 품질 검토 및 개선 방안

넷째,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통계 작성 방안(시계열 일관성 확보 방안, 신규 통계 등)

2. 표본설계 개선을 위한 진단

본 절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요구된 조사대상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집단의 확대, 층화 기준, 표본크기 관점에서 진단한다.

1) 모집단 분석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 및 가구원 중 보통조사구에 속한 일반가구의 만 19~69세 상주 가구원이다.

(1) 조사구 수의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집단은 〈표 4-1〉과 같다. 조사구는 평균 60가구가 되도록 기본조사구(평균 30가구)를 병합한 병합조사구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조사구 수는 366,598개이다.

〈표 4-1〉 지역별 보통조사구 수 현황(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조사구 수	일반 조사구 수	아파트 조사구 수	일반 조사구 수	조사구수	%
전국	156,883	133,633	23,972	52,110	366,598	100.00%
서울	29,146	39,629	0	0	68,775	18.76%
부산	13,352	10,970	745	356	25,423	6.93%
대구	8,179	7,033	1,232	456	16,900	4.61%
인천	10,376	8,535	54	531	19,496	5.32%
광주	6,500	3,695	0	0	10,195	2.78%
대전	5,841	4,671	0	0	10,512	2.87%
울산	3,946	2,547	835	729	8,057	2.20%
세종	1,417	43	259	536	2,255	0.62%
경기	40,786	29,204	5,802	9303	85,095	23.21%
강원	3,874	2,838	1,336	4,039	12,087	3.30%
충북	3,771	2,723	1,900	3,683	12,077	3.29%
충남	4,272	2,767	2,977	6,266	16,282	4.44%
전북	5,483	3,746	704	3,993	13,926	3.80%
전남	3,636	2,110	1,829	6,534	14,109	3.85%
경북	5,898	4,666	2,742	8,151	21,457	5.85%
경남	8,974	6,268	3,433	6,274	24,949	6.81%
제주	1,432	2,188	124	1,259	5,003	1.36%

조사구 특성(주택유형)로 보면, 아파트조사구가 180,855개, 일반조사구가 185,743개이고, 동읍면부별로는 동부가 290,516개이고, 읍면부가 76,082개이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85,095개(23.2%)로 가장 많고, 서울이 68,775개(18.8%)로 많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조사구는 173,366개로 47.3%이고, 서울, 부산, 세종 등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조사구는 161,613개로 44.1%이다.

참고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하면, 조사구 수는 341,369개에서 366,598개로 25,229개 증가하였다. 동부가 19,743개, 읍면부가 5,546개 증가하였고, 동부 중 아파트 조사구가 18,926개, 일반조사구가 817개 증가하여 2017년에 비해 동부의 아파트조사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2) 보통조사구의 가구 및 연령대별 가구원 수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조사구에 속한 일반 가구수 및 가구원(인구) 중 만 20-69세 인구(가구원) 수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시/도별 조사구, 가구, 인구 수 현황(2018년 인총 기준)

시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가구원수			
	보통조사구		보통가구 기준		추계인구 (2018년)	보통가구 가구원수	만 20-69세	
	조사구 수	구성비 (%)	전체가구수	구성비 (%)			가구원수	포함율 (%)
전국	366,598	100.00%	20,322,712	100.00%	51,606,633	49,433,850	35,722,095	72.26%
서울	68,775	18.76%	3,963,961	19.51%	9,704,546	9,400,507	7,058,795	75.09%
부산	25,423	6.93%	1,371,734	6.75%	3,400,027	3,266,369	2,393,259	73.27%
대구	16,900	4.61%	965,518	4.75%	2,449,789	2,366,889	1,717,457	72.56%
인천	19,496	5.32%	1,108,748	5.46%	2,938,875	2,830,253	2,086,706	73.73%
광주	10,195	2.78%	583,906	2.87%	1,493,417	1,427,946	1,019,011	71.36%
대전	10,512	2.87%	605,768	2.98%	1,517,902	1,442,100	1,046,054	72.54%
울산	8,057	2.20%	436,601	2.15%	1,154,482	1,101,478	814,961	73.99%
세종	2,255	0.62%	119,642	0.59%	303,582	299,289	204,830	68.44%
경기	85,095	23.21%	4,890,802	24.07%	13,031,356	12,599,781	9,151,012	72.63%
강원	12,087	3.30%	628,585	3.09%	1,520,816	1,431,777	997,688	69.68%
충북	12,077	3.29%	650,679	3.20%	1,618,877	1,531,628	1,084,361	70.80%
충남	16,282	4.44%	868,236	4.27%	2,179,663	2,040,860	1,415,088	69.34%
전북	13,926	3.80%	736,856	3.63%	1,820,168	1,720,514	1,179,295	68.54%
전남	14,109	3.85%	717,728	3.53%	1,790,233	1,646,278	1,102,388	66.96%
경북	21,457	5.85%	1,105,457	5.44%	2,674,333	2,519,422	1,760,589	69.88%
경남	24,949	6.81%	1,319,639	6.49%	3,355,874	3,189,585	2,261,579	70.91%
제주	5,003	1.36%	248,852	1.22%	652,693	619,174	429,022	69.29%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에 속한 보통 조사구의 가구수는 20,322,712가구이고, 인구(가구원)수는 49,433,850명이다. 2017년 모집단에 비해 가구수는 증가하였고,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 인구(가구원)수는 고연령층이 증가하고, 저연령층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적격 가구원은 보통 가구에 상주하는 만 19~69세이므로 2018년 모집단의 적격 가구원 포함율은 만 20~69세의 포함율이 72.3%이고, 만 19세를 반영하면 약 73~74% 정도로 2017년과 비슷하다(2017년 모집단의 만 13~69세 포함율은 73.1%). 광역시도별 적격 가구원의 포함율은 특별시/광역시/자치시와 경기도는 71%이상이지만 도지역은 충북(70.8%)과 경남(70.9%)을 제외한 7개 도는 70%미만이다. 특히 전남의 포함율이 67.0%로 가장 낮다.

본 과제에서 품질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 가능한 조사대상 연령층의 인구(가구원)수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대상 연령대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안하려고 한다. 〈표 4-2-2〉는 조사대상 연령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 모집단의 광역시도별 인구(가구원)수 현황이다. 보통 조사구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만 13-19세는 6.7%, 만 70-74세는 3.6%이고 70대(만 70-79세)는 6.8%이다.

저연령층인 만 13-19세의 지역별 포함율은 5.9~8.0%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시도별 차이가 크지 않고, 고연령층인 만 70~74세나 70대는 지역별 차이가 저연령층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 70~74세보다는 70대의 연령층에 대한 시도별 분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2〉 시/도별 조사대상 확대 연령대의 인구(가구원) 수 현황

시도	인구/가구원수					
	만 13-19세		만 70-74세		70대(만70-79세)	
	가구원수	포함율(%)	가구원수	포함율(%)	가구원수	포함율(%)
전국	3,304,074	6.68%	1,799,807	3.64%	3,337,191	6.75%
서울	579,613	6.17%	356,751	3.80%	631,604	6.72%
부산	199,474	6.11%	144,416	4.42%	259,162	7.93%
대구	169,028	7.14%	84,909	3.59%	158,517	6.70%
인천	191,782	6.78%	88,180	3.12%	157,415	5.56%
광주	114,229	8.00%	47,001	3.29%	85,017	5.95%
대전	109,358	7.58%	44,779	3.11%	81,609	5.66%
울산	75,870	6.89%	29,258	2.66%	51,201	4.65%
세종	21,056	7.04%	6,209	2.07%	11,725	3.92%
경기	892,330	7.08%	375,482	2.98%	680,247	5.40%
강원	92,690	6.47%	67,392	4.71%	130,197	9.09%
충북	101,009	6.59%	57,684	3.77%	113,103	7.38%
충남	131,232	6.43%	79,368	3.89%	156,522	7.67%
전북	117,582	6.83%	79,489	4.62%	154,547	8.98%
전남	100,731	6.12%	88,667	5.39%	179,602	10.91%
경북	148,975	5.91%	110,431	4.38%	223,163	8.86%
경남	212,873	6.67%	116,887	3.66%	221,969	6.96%
제주	46,242	7.47%	22,904	3.70%	41,591	6.72%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인 조사 연령층의 확대를 통계청의 사회조사와의 연계 분석 및 자료 연계뿐 아니라 2장에서 살펴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사 대상 확대 방안은 저연령층(만 13-18세), 고연령층(만 70-74세, 혹은 70대)으로의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2-1〉과 〈표 4-2-2〉를 통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품질 개선 요구사항인 조사대상 연령층을 추가하여 적격 가구원의 포함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 개선 요구사항인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조사대상에 저연령층(만 13-18세)을 추가하면 적격 가구원의 포함률은 78.9%로 증가한다.

둘째, 현재 조사대상에 고연령층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방안으로 만 70-74세를 추가하면 적격 가구원의 포함률은 76.7~77.0%, 70대를 추가하면 79.8~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품질개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현재 조사대상에 저연령층(만 13-18세)과 고연령층(만 70-74세)을 동시에 추가하면 82.6%로 증가한다.

(3) 보통조사구의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조사구에 속한 일반 가구 수 기준으로 조사구별 평균 가구수, 조사대상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과 같이 조사대상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 현황의 주요한 검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시/도의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 현황

시도	가구 수			평균 인구/가구원수(보통 가구 기준)					
	조사구 수	가구수	평균 가구수	추계 인구	보통 가구원	만 20-69세	만 13-19세	만 70-74세	70대 (만70-79세)
전국	366,598	20,322,712	55.44	2.54	2.43	1.76	0.16	0.09	0.16
서울	68,775	3,963,961	57.64	2.45	2.37	1.78	0.15	0.09	0.16
부산	25,423	1,371,734	53.96	2.48	2.38	1.74	0.15	0.11	0.19
대구	16,900	965,518	57.13	2.54	2.45	1.78	0.18	0.09	0.16
인천	19,496	1,108,748	56.87	2.65	2.55	1.88	0.17	0.08	0.14
광주	10,195	583,906	57.27	2.56	2.45	1.75	0.20	0.08	0.15
대전	10,512	605,768	57.63	2.51	2.38	1.73	0.18	0.07	0.13
울산	8,057	436,601	54.19	2.64	2.52	1.87	0.17	0.07	0.12
세종	2,255	119,642	53.06	2.54	2.50	1.71	0.18	0.05	0.10
경기	85,095	4,890,802	57.47	2.66	2.58	1.87	0.18	0.08	0.14
강원	12,087	628,585	52.01	2.42	2.28	1.59	0.15	0.11	0.21
충북	12,077	650,679	53.88	2.49	2.35	1.67	0.16	0.09	0.17
충남	16,282	868,236	53.32	2.51	2.35	1.63	0.15	0.09	0.18
전북	13,926	736,856	52.91	2.47	2.33	1.60	0.16	0.11	0.21
전남	14,109	717,728	50.87	2.49	2.29	1.54	0.14	0.12	0.25
경북	21,457	1,105,457	51.52	2.42	2.28	1.59	0.13	0.10	0.20
경남	24,949	1,319,639	52.89	2.54	2.42	1.71	0.16	0.09	0.17
제주	5,003	248,852	49.74	2.62	2.49	1.72	0.19	0.09	0.17

첫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모집단인 보통 조사구의 평균 가구수는 55.4가구이다. 광역시도별 평균 가구수는 특별시/광역시가 자치시 및 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많다.

둘째, 보통 조사구의 일반 가구에 속한 가구별 평균 가구원 수를 보면, 추계인구 기준의 평균 가구원수는 2.54명이고, 보통 가구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2.43명이다. 보통 조사구에 속한 가구의 시도별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경기가 2.5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도 2.55명으로 많은 반면, 강원과 경북이 2.28명으로 가장 적고, 전남도 2.29명으로 적다.

셋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적격 가구원 수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층별 평균 가구원수를 살펴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적격 가구원으로 고려 가능한 만 20-69세 가구원은 1.76명으로 현행 조사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2.0명보다는 작다. 광역시도별 적격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인천이 1.8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87명으로 만은 반면, 전남이 1.54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과 강원이 1.59명으로 적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조사의 표본크기인 4,000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의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별로도 목표 가구원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② 저연령층인 만 13-19세의 평균 가구원 수는 0.16명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0.2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0.19명으로 많은 반면, 경북이 0.13명으로 가장 적고, 전남도 0.14명으로 적다.

③ 고연령층인 만 70-74세의 평균 가구원 수는 0.09명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0.12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강원, 전북이 0.11명으로 많은 반면, 세종이 0.05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과 울산이 0.07명으로 적다.

④ 고연령층인 70대(만70-79세)의 평균 가구원 수는 0.16명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0.25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과 전북이 0.21명으로 많은 반면, 세종이 0.1명으로 가장 적고, 울산이 0.12명으로 적다.

(4)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고려한 평균 가구원 수 현황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반영한 보통조사구의 가구별 평균 적격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와 같이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반영한 평균 가구원 수 현황의 주요한 검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인 저연령층(만 13~18세)을 추가한 평균 가구원 수는 1.92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2.06명, 경기가 2.05명, 울산이 2.04명으로 현행 평균 가구원 수 기준인 2.0명보다 많은 반면, 전남이 1.68명으로 가장 적다. 만 13-18세의 저연령층만을 추가한다면 조사대상 연령층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적격 가구원 수의 감소로 인해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본 가구수인 4,000가구보다 표본크기가 더 필요하다.

〈표 4-4〉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반영한 시/도의 평균 적격 가구원 수 현황

시도	확대 추가 연령대 기준 평균 가구원 수			
	만13-69세	만19(20)-74세	만19(20)-79대	만 13-74세
전국	1.92	1.85	1.92	2.01
서울	1.93	1.87	1.94	2.02
부산	1.89	1.85	1.93	2.00
대구	1.95	1.87	1.94	2.04
인천	2.06	1.96	2.02	2.13
광주	1.94	1.83	1.89	2.02
대전	1.91	1.80	1.86	1.98
울산	2.04	1.93	1.98	2.11
세종	1.89	1.76	1.81	1.94
경기	2.05	1.95	2.01	2.13
강원	1.73	1.69	1.79	1.84
충북	1.82	1.76	1.84	1.91
충남	1.78	1.72	1.81	1.87
전북	1.76	1.71	1.81	1.87
전남	1.68	1.66	1.79	1.80
경북	1.73	1.69	1.79	1.83
경남	1.88	1.80	1.88	1.96
제주	1.91	1.82	1.89	2.00

둘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인 고연령층(만 70-74세)을 추가한 평균 가구원 수는 1.85~1.9명 정도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1.96명, 경기가 1.95명, 울산이 1.93명으로 많은 반면, 전남이 1.66명, 강원과 경북이 1.69명으로 적다. 만 70-74세의 고연령층만을 추가한다면 조사대상 연령층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적격 가구원 수의 감소로 인해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본 가구수인 4,000가구보다 표본크기가 더 필요하다.

셋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인 고연령층(70대/만70-79세)을 추가한 평균 가구원 수는 1.92~2.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2.02명, 경기가 2.01명으로 현행 평균 가구원 수 기준인 2.0명보다 많은 반면, 전남, 강원과 경북이 1.79명으로 가장 적다. 70대의 고연령층만을 추가한다면 도지역의 적격 가구원수 확보가 용이해 지는 측면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지역별 목표 적격 가구원 수 확보를 위한 지역별 표본 가구수는 현행 표본설계의 표본크기보다 더 필요하다.

넷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인 연령층의 확대를 위해 저연령층(만 13-18세)과 고연령층(만70-74세)을 동시에 추가한 평균 가구원 수는 2.01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가 2.13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1.80명으로 가장 적다. 저연령층(만 13-18세)과 고연령층(만70-74세)을 동시에 추가한다면 현재 표본설계와 같이 목표 적격 가구원 수 8,000명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일부 도지역은 1.9명 이하이므로 지역별 목표 적격 가구원 수 확보를 위한 지역별 표본 가구수는 현행 표본설계의 표본크기보다 더 필요하다.

(5) 소결

본 절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을 살펴보고, 조사대상의 연령층 확대를 위한 연령층별 가구원수 및 목표 표본크기 확보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모집단을 분석한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 개선 요구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시된 표본추출틀 개선을 위해 살펴본 조사구의 가구수별 규모는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에서 평균 10가구를 추출하므로 30가구 기준의 기본 조사구를 2개를 병합한 병합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함은 적절하다. 이는 조사 연령층의 확대 관점보다는 가구원수 감소, 저연령층 감소와 고연령층의 증가 등 변화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최신의 조사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의 병합조사구를 사용하기에 품질 개선 요구 사항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구원수의 감소, 통계청의 사회조사와의 연계 분석 및 자료 연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는 저연령층 혹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의 연령층의 확대는 저연령층만을 확대하면 약 6%정도가 추가되고, 저연령층(만 13-18세)과 만 70-74세의 고연령층을 동시에 확대하면 약 10%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행 조사의 조사대상에 저연령층(만 13-18세)과 만 70-74세의 고연령층을 동시에 추가하면 목표 적격 가구원 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추가되는 연령

층의 시도별 분포 차이로 인해 시도별 표본 가구수는 추가가 필요하다. 또한 저연령층만을 추가한다면 목표 표본크기는 4,000가구 이상이 필요하다.

넷째, 결론적으로 품질 개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연령층 감소와 고연령층의 증가 등 모집단 변화 및 가구별 가구원수의 변화를 고려해 조사연령 대상을 확대한다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동시에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현행 표본설계의 층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층화 변수는 지역(21개 권역), 동읍면부, 주택유형(조사구 특성)이다. 현행 표본설계에서 모집단의 층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 표본설계의 층화 과정[1)]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층화 과정에 대한 표본설계 요약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층화 과정은 표본설계보고서(2019.8 한국행정연구원)를 인용함

① 층화 과정의 고려 사항

층화 과정 고려 사항	- 17개 시·도별 조사데이터의 비교분석 결과에서 일정수준의 신뢰성을 갖도록 설계 - 층화변수는 2013~2018년 조사의 일관성과 시계열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선정함 - 서울시와 경기도의 세부 층화로 서울시와 경기도 내의 세부 지역별로 고른 표본크기가 할당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실태조사」 내용에서 층 내의 동질성으로 정도(precision)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주거환경이나 생활 여건에서 특성이 다른 권역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특성으로 층을 세분화한다면 모수추정에서 정도(precision)를 높일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4개 권역으로, 경기도는 2개 권역으로 층을 세분화하여 층화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주택유형은 내재적 층화보다는 외재적 층화효과가 클 것이며, 세부 층별로 충분한 표본 규모의 확보로 분산의 과대 평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② 층화 변수와 기준

층화변수 및 기준	- 1차 층화 :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21개 권역 구분, 층화효과 확대) ◦ 서울과 경기는 지리적 인접성과 인구 수를 고려하여 각각 4개, 2개의 권역으로 구분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 주택유형(아파트/일반)

③ 층화 타당성 검토

서울	- 서울시 4개 권역의 세부층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8년 조사의 주요 지표인 주관적 웰빙과 기관 신뢰도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웰빙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관 신뢰도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경기	- 경기도 2개 권역의 세부층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8년 조사의 주요 지표인 주관적 웰빙과 기관 신뢰도에 대하여 T 검정을 실시함. - 두 지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부 지역의 층화는 표본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표본의 안정성과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조사와의 일관성 있는 설계를 위해 경기도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모집단 층화는 표본설계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층화 변수는 권역, 동읍면부 및 주택유형를 설정하고, 2013년 이후 조사의 일관성과 시계열 유지를 위해 동일한 층화 변수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층화 변수 및 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관심 변수인 주관적 웰빙과 기관 신뢰도에 대한 유의성 검정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적절하다.

셋째, 1차 층화는 지역이지만 서울과 경기는 층의 동질성 확보 및 지리적, 인구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으로 세부 층화함으로써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사회조사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층화 결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층수는 52개 층이며, 지역 규모 특성을 고려한 층화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모집단 층화변수와 특성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수
특·광역시	□ 특광역시 : 8개	□ 서울 : 4개 권역*동부*주택유형 □ 6개 광역시 : 동부*주택유형 □ 세종시 : 동부*주택유형(1), 읍면부	22
도 지역	□ 경기도 : 1개	□ 2개 권역*동부*주택유형 □ 2개 권역*읍면부	6
	□ 그 외 도 : 8개	□ 동부*주택유형 □ 읍면부	24

참고로 서울과 경기의 권역별 해당 구와 시군 현황은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서울과 경기의 권역별 해당 구/시군 현황

지역	권역	해당 지역
서울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중북부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층화에 대한 검토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 광역시는 8개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2차 층화는 동부x주택유형, 읍면부(주택유형 구분하지 않음)로 층화해 모두 22개 층으로 층화한다.

둘째, 도지역의 경우, 경기도는 2개 권역, 나머지 8개 도는 1개 권역으로 1차 층화하고, 2차 층화는 동부x주택유형을 고려하지만 읍면부는 주택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모두 30개 층으로 층화한다.

(3) 소결

본 절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층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표본설계 중 층화 과정에 대해 검토 및 진단한 내용에 대한 결론과 개선을 위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현행 층화 변수와 기준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조사의 일관성 및 시계열 유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매년 조사설계 시 층화변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확대되더라도 조사 대상의 추가는 표본 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을 확대하여 전수 추출하므로 층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행과 동일한 층화 변수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현행 층화 변수와 기준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층화 기준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향후 사회조사와의 매칭 등의 연계를 고려하더라도 조사의 일관성 및 현재 수준의 통계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행 층화 변수의 모집단 특성이 심하게 변화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적용해도 된다고 판단된다.

3) 표본크기의 적절성 검토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본크기 결정 과정의 진단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 결정 시 고려사항과 적절성에 대한 표본설계 요약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표본크기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층화 과정 고려 사항	- 생산되는 통계의 목표표본오차의 크기와 주어진 예산 및 조사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8,000명을 최소 유효표본 크기로 설정함. -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므로 동일 조사구 내의 가구와 가구원들간에 유사성으로 유효표본 규모는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효과를 반영함 - 조사구당 10가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통계의 정도(precision)와 조사비용, 표본대체 등 현장조사 업무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결정함

② 표본크기 결정 및 적절성

구분	내용
표본크기	8,000명(4,000가구 적격 가구원 전원조사)
표본오차	① 비율 추정시 95% 신뢰수준 ±1.55%p(설계효과 적용 시 ±1.84%p) ② 주관적 웰빙 추정(평균) 시 기대 상대표준오차 0.61% ③ 기관 신뢰도 추정(평균) 시 기대 상대표준오차 0.84%
설계효과	1.41(조사구 내 상관계수(0.005~0.01)가정에서 계산됨)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 결정 과정을 보면, 목표 표본크기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목표 표본크기를 설정하고, 표본 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 추출하여 목표 가구원 수를 결정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에 대한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4,000가구의 적절성을 통해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본 절에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 산출 과정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_0 = \frac{(1.96)^2(0.5 \times 0.5)}{(0.0155)^2} = 3,997.5 \approx 4,000$$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을 위한 95% 신뢰수준에서 목표 표본오차 1.55%p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대 표본크기로 표본설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본오차는 설계효과(deff) 1.41을 반영할 때 1.84%p가 됨을 확인하였다.

$$deff = \frac{V_{survey}}{V_{SRS}} = 1 + (\overline{m} - 1)\rho$$
$$\Rightarrow se_{survey} = se_{SRS} \times \sqrt{deff}$$
$$\Rightarrow 1.84 = 1.55 \times \sqrt{1.41}$$

(2) 통계작성 단위별 기대 상대표준오차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표본설계 과정에서는 표본크기를 결정한 후, 결정된 표본크기에 대한 타당성은 통계 작성 및 공표 범위별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해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목표 표본크기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2018년과 동일한 설계이고, 개인(가구원) 단위의 통계를 작성하므로 목표 가구원 수 8,000명 조사 시 주요 공표 범위별 주관적 웰빙과 기관 신뢰도에 대해 검토한 기대 상대표준오차(rse)는 계산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2].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에 대해 주요 문항인 주관적웰빙의 기대 상대표준오차는 0.61%이고, 기관 신뢰도의 기대 상대표준오차는 0.71%로 통계청에서 권고하는 가구통계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기대된다[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기본적인 작성 단위에 대한 주요 공표 범위별 기대 상대표준오차를 보면, 읍면부가 1.2~1.6% 수준으로 동부보다 높지만 신뢰도는 높고, 성별은 0.67~0.77%, 연령대는 0.84~1.08%, 직업은 0.76~2.59%, 가구소득별로는 0.94~2.32%, 학력별로는 0.67~1.8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통계청에서 권고하는 가구 통계의 신뢰도 관점에서 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공표 범위별 상대표준오차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보고서를 인용함.

3) 영역별 작성 통계의 신뢰도 기준은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제10조(표본오차의 기준)를 참고하기 바람.

〈표 4-7〉 주요 공표 범위별 기대 상대표준오차(rse)

구분		2018년 조사 표본크기(명)	주관적 웰빙		기관 신뢰도	
			평균(10점)	rse	평균(4점)	rse
전체		8,000	6.48	0.61%	2.33	0.71%
동·읍면부	도시(동부)	6,506	6.52	0.69%	2.33	0.79%
	농어촌(읍면부)	1,494	6.26	1.28%	2.34	1.57%
성별	남 자	3,975	6.43	0.67%	2.31	0.77%
	여 자	4,025	6.52	0.67%	2.36	0.73%
연령	19~29세	1,356	6.50	0.83%	2.33	1.08%
	30 대	1,419	6.57	0.95%	2.30	1.03%
	40 대	1,751	6.50	0.89%	2.34	0.97%
	50 대	2,020	6.44	0.90%	2.35	0.87%
	60~69세	1,454	6.35	1.00%	2.34	0.94%
직업	전문 관리	440	6.57	1.55%	2.24	1.49%
	사무	1,535	6.73	0.98%	2.39	1.05%
	서비스 판매	2,372	6.39	0.76%	2.30	0.88%
	농림어업	370	6.37	2.59%	2.39	2.33%
	기능 노무	1,143	6.31	1.12%	2.31	1.05%
	기타	5	5.10	10.79%	2.22	6.75%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9	5.89	2.32%	2.27	2.25%
	100 ~ 200만원 미만	605	6.09	1.53%	2.32	1.31%
	200 ~ 300만원 미만	1,161	6.38	1.14%	2.34	1.22%
	300 ~ 400만원 미만	1,613	6.53	0.95%	2.32	0.94%
	400 ~ 500만원 미만	1,590	6.56	1.02%	2.34	1.20%
	500 ~ 600만원 미만	1,142	6.62	1.01%	2.33	1.26%
	600만원 이상	1,570	6.60	1.10%	2.36	0.96%
학력	초졸 이하	318	6.03	1.72%	2.33	1.81%
	중졸	548	6.23	1.50%	2.35	1.31%
	고졸	3,520	6.41	0.67%	2.31	0.81%
	대졸 이상	3,614	6.59	0.80%	2.35	0.83%

(3) 소결

본 절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표본크기 결정 과정과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표본크기 결정 과정과 적절성 및 통계 생산 단위의 타당성을 진단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표본이론 관점의 표본크기 결정에서 요구되는 산출 과정은 가구원 수를 결정하는 표본크기의 결정이 아니라 가구수를 기준으로 목표 표본크기를 설정하고, 표본 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 추출하여 목표 가구원 수를 결정한다. 즉, 산출 식을 통해 결정되는 목표 표본크기는 4,000가구이고, 가구별 평균 2명의 적격 가구원을 고려하여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결정한다.

둘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목표 표본크기 4,000가구에 대한 산출 과정은 표본설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가구별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이 적절하다면 현재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목표 표본크기 4,000가구는 조사 목적 및 목표 오차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표본크기를 판단된다. 하지만 표본 가구원 수의 감소로 인해 가구원 수는 표본 가구의 적격 가구원 수에 의존하므로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의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에 대한 타당성을 주요 문항인 주관적 웰빙과 기관 신뢰도의 공표 범위별 상대표본오차는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 표본크기 결정 과정과 적절성 및 통계 생산 단위의 타당성을 진단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에 대한 설명은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추출 단위인 목표 가구 수 4,000가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표본설계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만 13-18세의 저연령층과 만 70-74세의 고연령층을 확대한다면 가구별 적격 가구원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현행 4,000가구의 규모에서도 목표 가구원의 표본크기보다는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모집단 분석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가구의 적격 가구원 수 감소, 모집단에서 저연령층의 감소와 고연령층의 증가 등 모집단 및 가구 특성의 변화로 인해 만 13-18세의 저연령층과 만 70-74세의 고연령층을 확대하더라도 현행 표본크기인 4,000가구에서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표 가구원 수 8,000명 확보를 위한 표본크기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조사의 통계 안정성과 시계열적 목표 오차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분석하려면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하다.

3. 표본설계 관점의 개선 방안

본 절에서는 3-2절에서 검토한 표본설계의 개선을 위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개선 의견을 제안한다.

1) 표본크기 산출 과정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현행 표본설계에서 표본크기는 “전국 표본가구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상주 가구원 8,000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 표본크기 결정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현행 표본설계의 표본크기는 목표 표본 가구수의 크기를 산출하고, 목표 가구원 수는 표본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적격 가구원을 전수 추출하여 확보하는 최소한의 목표 크기이다. 현재 표본크기의 산출 기준은 ‘95% 신뢰수준에서 목표 오차 1.55%p를 만족하는 표본크기’로 이를 만족하는 표본크기는 4,000가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표현된 목표 가구원 수는 표본설계 과정을 통해 산출된 크기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최소한으로 확보하도록 설정한 목표 크기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를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대한 표본크기 산출로 오해하여 개인 단위로 설계된 조사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만일 가구원 수 8,000명의 표본크기에 가구 기준의 설계효과 1.41을 적용한다면 단순확률추출 기준에서는 약 5,674명의 효과를 보이므로 현행 표본설계에서 표현하는 가구원 수 기준의 8,000명 크기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표본가구-적격가구원 전수추출하여 개인(가구원) 단위로 통계를 작성한다. 사회조사의 표본크기 산출은 “주요 항목의 상대표준오차를 전국 1.5%, 시도 6~10%를 목표로 하는 전국 1,548개 조사구, 27,336가구(목표 표본가구 18,576가구)”로 표현하고 있다. 즉, 개인(가구원) 단위로 분석을 하더라도 표본크기는 목표 가구 수를 산출하므로 가구원 수가 아니라 가구수의 산출을 표본크기로 표현하는 것이고, 무응답을 고려해 목표 표본가구를 추가해 설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표본설계에서 표본크기는 가구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 확보를 요구하는 목표 가구원 수는 병기해 표현하는 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목표 표본오차 1.55%p(설계효과 1.41 반영 시 1.84%p)를 만족하는 4,000가구(목표 가구원 수 8,000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조사대상 확대와 표본크기의 증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현행 표본크기는 가구수 4,000가구, 가구원 8,000명이다. 목표 가구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격 가구원이 평균 2.0명을 만족해야 목표 가구원 수를 확보하게 된다. 본 과제에서는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표본 가구수의 확대 방안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표본크기를 조정하기 위한 진단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표본크기는 표본가구내 만 19-69세의 적격 가구원이 평균 2.0명을 만족한다면 4,000가구는 적절한 표본크기이다. 하지만 3-2절의 모집단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 13-69세의 평균 가구원 수가 1.92명이므로 만 19-69세의 적격 가구원은 평균 2.0명보다 적다. 2018년 인구총조사의 모집단 변화를 고려한다면, 전국 평균 1.8명 기준에서 4,000가구를 추출하면 적격 가구원은 7,200명이 확보될 것이고,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려면 4,450가구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조사 시점의 가구내 적격 가구원 수 감소로 인해 목표 4,000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함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모집단 특성의 변화 뿐만 아니라 표본 가구 접촉율 감소, 아파트 가구의 접촉율 감소, 개인 정보보호 인식 강화 등으로 인한 조사 참여 거부 등 현실적인 국내 조사환경을 고려하면 현행 표본크기 결정 과정에 다음의 3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황 1 : 목표 가구 수 4,000가구를 추출해 표본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 추출하더라도 8,000명의 확보가 어렵다.

상황 2 : 최초 결정한 목표 4,000가구를 추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본 가구 대체

등의 과정에서 1인 가구보다 3-4인 가구 접촉이 많아 표본가구에서 적격 가구원 8,000명을 초과한다.

상황 3 :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 추출하더라도 4,000가구 이상이 필요하다.

표본크기 조정을 위한 진단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진단 개선 요구 상황인 연령층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적격 가구원 수 감소로 인한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해 목표 표본가구 수는 더 많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모집단의 평균 가구원 수 감소와 품질진단 요구 사항인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를 동시에 고려해 표본크기에 대한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방안 1 : 저연령층(만 13-18세)을 추가하는 방안

방안 1은 현재 조사대상인 만 19-69세에 만 13-18세의 저연령층을 추가하여 만 13-69세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방안 1에 대한 표본크기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저연령층(만 13-18세) 확대에 대한 표본크기의 제안

지역		현행 설계 조사구 수				현행/기대 가구원 표본크기	표본크기 제안(제안 검토/단위: 명)					
		동부		읍면부	합계		평균 가구원수	조사 가구원수	필요 가구수	필요 조사구수	예상 가구원수	만13-19세
		아파트	일반									
전국		164	147	89	400	8,000	1.92	7575	4241	430	8112	685
서울	소계	19	28	0	47	940	1.93	906	488	49	944	71
	북서	3	6	0	9	180						
	북동	6	8	0	14	280						
	남서	5	9	0	14	280						
	남동	5	5	0	10	200						
부산		14	14	0	28	560	1.89	529	296	30	567	43
대구		12	11	0	23	460	1.95	449	235	24	469	41
인천		13	12	0	25	500	2.06	514	243	25	514	42
광주		11	7	0	18	360	1.94	349	185	19	369	36
대전		9	9	0	18	360	1.91	343	189	19	362	34
울산		9	7	0	16	320	2.04	326	157	16	326	27
세종		6	2	0	8	160	1.89	151	85	9	170	15
경기	소계	24	19	9	52	1040	2.05	1068	506	51	1047	92
	중북부	14	11	5	30	600						
	남부	10	8	4	22	440						
강원		6	4	9	19	380	1.73	330	219	22	382	32
충북		6	4	9	19	380	1.82	346	209	21	383	32
충남		5	4	13	22	440	1.78	392	247	25	445	37
전북		7	5	8	20	400	1.76	352	227	23	405	36
전남		5	3	13	21	420	1.68	352	251	26	436	35
경북		6	5	14	25	500	1.73	432	289	29	501	39
경남		9	7	11	27	540	1.88	506	288	29	544	46
제주		3	6	3	12	240	1.91	229	126	13	248	23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 가구내 만 13-69세의 가구원은 평균 1.92명이다. 이를 현재 설계와 같이 전국 기준의 표본크기 4,000가구를 추출할 때 확보 가능한 가구원 수는 7,575명이 예상된다. 목표 가구원수 8,000명을 확보하려면 최소 4,166가구가 필요하다. 이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도별 평균 가구원수를 적용해 시도별 산정하면 총 4,241 가구가 필요하게 된다.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구별 평균 10가구를 추출하는 현행 표본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조사구를 계산하면 약 430개 조사구가 필요하므로 목표 표본크기는 최대 4,300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 1을 적용하면 4,300가구, 목표 가구원은 8,112명으로 예상된다. 이 때 추가되는 만 13-18세를 포함한 만 13-19세의 가구원은 685명, 만 20-69세는 7,427명으로 예상된다.

방안 1의 표본크기 4,300가구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_0 = \frac{(1.96)^2(0.5 \times 0.5)}{(0.015)^2} = 4,268.5 \approx 4,300$$

$$se_{survey} = se_{SRS} \times \sqrt{deff} = 1.50 \times \sqrt{1.41} = 1.78$$

방안 1의 목표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을 위한 95% 신뢰수준에서 목표 표본오차 1.50%p이고, 설계효과(deff) 1.41을 반영할 때 1.78%p이다.

● 방안 2 : 고연령층(만 70-74세)을 추가하는 방안

방안 2는 현재 조사대상인 만 19-69세에 만 70-74세의 고연령층을 추가하여 만 19-74세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방안 2에 대한 표본크기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표 4-9〉과 같다.

〈표 4-9〉를 보면,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 가구내 만 19-74세의 가구원은 평균 1.85명이다. 이를 현재 설계와 같이 전국 기준의 표본크기 4,000가구를 추출할 때 확보 가능한 가구원 수는 7,285명이 예상된다. 목표 가구원수 8,000명을 확보하려면 최소 4,333가구가 필요하다. 이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도별 평균 가구원수를 적용해 시도별 산정하면 총 4,405가구가 필요하게 된다.

〈표 4-9〉 고연령층(만 70-74세) 확대에 대한 표본크기의 제안

지역		현행 설계 조사구 수				현행/기대 가구원 표본크기	표본크기 제안(제안 검토/단위: 명)					
		동부		읍면부	합계		평균 가구원수	조사 가구원수	필요 가구수	필요 조사구수	예상 가구원수	만70-74세
		아파트	일반									
전국		164	147	89	400	8,000	1.85	7285	4405	449	8154	398
서울	소계	19	28	0	47	940	1.87	879	502	51	954	45
	북서	3	6	0	9	180						
	북동	6	8	0	14	280						
	남서	5	9	0	14	280						
	남동	5	5	0	10	200						
부산		14	14	0	28	560	1.85	518	303	31	573	32
대구		12	11	0	23	460	1.87	429	246	25	467	22
인천		13	12	0	25	500	1.96	490	255	26	510	20
광주		11	7	0	18	360	1.83	329	197	20	365	16
대전		9	9	0	18	360	1.80	324	200	20	360	15
울산		9	7	0	16	320	1.93	309	165	17	329	11
세종		6	2	0	8	160	1.76	141	91	10	176	5
경기	소계	24	19	9	52	1040	1.95	1013	534	54	1052	41
	중북부	14	11	5	30	600						
	남부	10	8	4	22	440						
강원		6	4	9	19	380	1.69	322	224	23	390	24
충북		6	4	9	19	380	1.76	333	217	22	386	19
충남		5	4	13	22	440	1.72	379	256	26	448	23
전북		7	5	8	20	400	1.71	342	234	24	410	25
전남		5	3	13	21	420	1.66	348	253	26	431	31
경북		6	5	14	25	500	1.69	423	295	30	508	30
경남		9	7	11	27	540	1.80	487	300	30	541	27
제주		3	6	3	12	240	1.82	218	132	14	254	12

주) 필요 조사구 수는 일부 지역의 표본 가구수를 조정하면 최소 440개 조사구로 조정 가능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구별 평균 10가구를 추출하는 현행 표본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조사구를 계산하면 약 440개 조사구가 필요하므로 목표 표본크기는 최대 4,400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 2를 적용하면 4,400가구, 목표 가구원은 8,154명으로 예상된다. 이 때 추가되는 만 70-74세의 가구원은 약 400명, 만 19-69세는 7,750명으로 예상된다.

방안 2의 표본크기 4,400가구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n_0 = \frac{(1.96)^2(0.5 \times 0.5)}{(0.0148)^2} = 4,384.6 \approx 4,400$$

$$se_{survey} = se_{SRS} \times \sqrt{deff} = 1.48 \times \sqrt{1.41} = 1.76$$

방안 2의 목표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을 위한 95% 신뢰수준에서 목표 표본오차 1.48%p이고, 설계효과(deff) 1.41을 반영할 때 1.76%p이다.

● 방안 3 : 저연령층(만 13-18세)과 고연령층(만 70-74세)을 동시에 추가하는 방안

방안 3은 현재 조사대상인 만 19-69세에 저연령층(만 13-18세)과 고연령층(만 70-74세)을 동시에 추가하여 만 13-74세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방안 3에 대한 표본크기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 가구내 만 13-74세의 가구원은 평균 2.01명이다. 이를 현재 설계와 같이 전국 기준의 표본크기 4,000가구를 추출할 때 확보 가능한 가구원 수는 7,934명이 예상된다. 목표 가구원수 8,000명을 확보하려면 최소 3,982가구가 필요하다. 이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도별 평균 가구원수를 적용해 시도별 산정하면 총 4,045가구가 필요하게 된다.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구별 평균 10가구를 추출하는 현행 표본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조사구를 계산하면 약 410개 조사구가 필요하므로 목표 표본크기는 최대 약 4,100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 3을 적용하면 4,100가구, 목표 가구원은 8,168명으로 예상된다. 이 때 추가되는 만 만 13-18세와 70-74세의 가구원은 약 1,020명, 만 19-69세는 7,150명으로 예상된다.

〈표 4-10〉 저연령층(만13-18세)과 고연령층(만70-74세)의 동시 확대에 대한 표본크기의 제안

지역		현행 설계 조사구 수				현행/기대 가구원 표본크기	표본크기 제안(제안 검토/단위: 명)					
		동부		읍면부	합계		평균 가구원수	조사 가구원수	필요 가구수	필요 조사구수	예상 가구원수	만13-19 만70-74세
		아파트	일반									
전국		164	147	89	400	8,000	2.01	7934	4045	413	8168	1019
서울	소계	19	28	0	47	940	2.02	948	466	47	948	110
	북서	3	6	0	9	180						
	북동	6	8	0	14	280						
	남서	5	9	0	14	280						
	남동	5	5	0	10	200						
부산		14	14	0	28	560	2	559	281	29	579	70
대구		12	11	0	23	460	2.04	470	225	23	470	59
인천		13	12	0	25	500	2.13	534	234	24	512	59
광주		11	7	0	18	360	2.02	364	178	18	364	49
대전		9	9	0	18	360	1.98	357	182	19	376	46
울산		9	7	0	16	320	2.11	337	152	16	337	37
세종		6	2	0	8	160	1.94	155	82	9	175	19
경기	소계	24	19	9	52	1040	2.13	1108	488	49	1044	127
	중북부	14	11	5	30	600						
	남부	10	8	4	22	440						
강원		6	4	9	19	380	1.84	350	206	21	387	53
충북		6	4	9	19	380	1.91	363	199	20	382	49
충남		5	4	13	22	440	1.87	412	235	24	449	57
전북		7	5	8	20	400	1.87	374	214	22	411	57
전남		5	3	13	21	420	1.8	378	233	24	432	62
경북		6	5	14	25	500	1.83	457	274	28	512	64
경남		9	7	11	27	540	1.96	530	275	28	550	69
제주		3	6	3	12	240	2	240	120	12	240	33

주) 필요 조사구 수는 일부 지역의 표본 가구수를 조정하면 최소 410개 조사구로 조정 가능

방안 3의 표본크기 4,100가구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n_0 = \frac{(1.96)^2(0.5 \times 0.5)}{(0.0154)^2} = 4{,}049.6 \approx 4{,}100$$

$$se_{survey} = se_{SRS} \times \sqrt{deff} = 1.54 \times \sqrt{1.41} = 1.83$$

방안 3의 목표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을 위한 95% 신뢰수준에서 목표 표본오차 1.48%p이고, 설계효과(deff) 1.41을 반영할 때 1.76%p이다.

3) 소결 : 표본크기 산출 방식 및 조사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

3-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균 가구원 수 감소를 반영하면 표본크기 산출 기준이 되는 목표 표본가구수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목표 가구원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도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변화된 모집단 특성, 어려운 조사환경 및 품질진단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조사대상 연령층을 추가해 확대하고, 확대 방법별 목표 표본크기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연령층의 추가 방안별 표본크기 산출 규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안	표본크기 산출 규모
방안 1 (저연령층/ 만 13-18세)	◦430개 조사구(지역별 평균 가구원 수 적용) ◦목표 표본가구 4,300가구 (확보 가구원 수 8,110명 예상) ◦연령층별 가구원 수 확보 현황(예상) - 만 13-19세 : 685명 - 만 20-69세 : 7,425명
방안 2 (고연령층/ 만 70-74세)	◦440개 조사구(지역별 평균 가구원 수 적용) ◦목표 표본가구 4,400가구 (확보 가구원 수 8,150명 예상) ◦연령층별 가구원 수 확보 현황(예상) - 만 20-69세 : 7,750명 - 만 70-74세 : 400명
방안 3 (저연령층+ 고연령층)	◦410개 조사구(지역별 평균 가구원 수 적용) ◦목표 표본가구 4,100가구 (확보 가구원 수 8,170명 예상) ◦연령층별 가구원 수 확보 현황(예상) - 만 13-19세/만 70-74세 : 1,020명 - 만 20-69세 : 7,150명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변화된 모집단 특성, 어려운 조사환경 및 품질진단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 표본 가구수의 증가는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표본 가구수의 확대 방안만을 고려하였다. 조사대상 연령층의 목표(혹은 확보) 가구원 수를 결정한다면 추가 연령층의 가구원 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표본가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 방안으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동시에 확대해 현재 조사대상인 만 16-69세를 만 13-7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목표 표본크기는 가구수 기준으로 4,100가구가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추가되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목표 가구원 수를 결정한다면 가구원수가 적은 고연령층 관점으로 보면 목표 표본크기는 최대 4,400가구(고연령층 기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4. 품질 개선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앞서 제안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추가해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기법의 개선, 시계열적 일관성과 통계 안정화를 고려한 통계 작성 방안, 자료 공개 방식, 결합 마이크로 데이터의 생성 등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저연령층 조사를 위한 조사표 개발과 조사 기법의 개선

본 과제에서 현행 만 19-69세의 조사대상을 만 13-7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만 13-18세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므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에 대한 측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조사표 개선과 개발은 제3장에서 다루어지므로 본 절에서는 저연령층인 만 13-18세의 중고교생이 포함될 때 조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만 13-18세의 학생들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되면 조사에 미치는 긍정 및 부정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효과로는 가구 단위 분석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부모-자녀를 연계한 다양한 연구 주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중고생 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실태 조사의 많은 문항에 대해 가구원 연계 여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정적인 효과로는 만 13-18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조사 참여 감소가 염려된다. 만 13-18세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우 높은 관심을 둔 상황에서 중고생 자녀를 조사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조사 참여 거부 등의 거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중고생 자녀의 가구원 조사는 무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중고생자녀의 조사로 인해 가구의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과 저연령층의 단위 무응답을 높여 가구 대체가 더 많아지고 가구원의 무응답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원표본 가구 유지율과 적격 가구원의 응답율이 낮아져 표본설계의 신뢰성과 조사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중고생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및 가구원 조사의 응답율을 높이는 조사기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원 파악을 위한 가구용 조사표가 필요하다. 즉, 가구 특성과 가구원 특성,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 등을 간단히 파악하는 조사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구용 조사표를 통해 적격 가구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조사 품질에 대해 정확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고교생용 혹은 청소년용 조사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측정하는 조사 내용 중 중고교생 혹은 청소년들에게 측정 가능한 조사 내용을 선정하여 중고교생(혹은 청소년용) 조사표를 개발하여 참여율 및 응답율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고교생의 접촉 및 조사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고교생 조사를 위해서는 학부모를 설득하고, 또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고교생 조사는 대면조사보다는 유치조사나 웹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교생들이 익숙한 웹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넷째, 중고교생 대상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두 가지 조사 방법도 가능하다.

① 만 13-18세의 중고교생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는 방안

② 2년 혹은 3년 주기의 부가조사 방식 : 표본 가구내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표본 가구에 한 해 부가조사를 수행하는 방식

2) 시계열 일관성 및 통계 안정화 확보와 신규 통계 작성 방안

본 절에서는 만 19-69세의 조사대상을 만 13-18세와 만 70-74세로 추가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일관성과 통계의 안정성 검토와 신규 통계 작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만 19-69세의 조사대상을 만 13-18세와 만 70-74세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상황과 이를 고려한 통계 작성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1〉과 같다.

조사 대상	저연령층: 만 13 - 18세	현행 적격 가구원 : 만 19 - 69세	고연령층: 만 70 - 74세
통계 단위	저연령층: (신규/전국)	현행 방식의 통계 작성	고연령층: (신규/전국)

〈그림 4-1〉 조사대상 확대와 통계 작성 영역의 구분(제안)

본 과제에서는 〈그림 4-1〉과 같이 조사대상의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일관성과 통계의 안정성 진단과 개선, 신규 통계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이론 관점에서 보면, 표본크기가 증가하면 주요 변수의 상대표준오차를 감소시켜 통계 정확성을 높이게 되므로 시계열 일관성 유지, 통계 안정화 및 통계 정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가구 관점에서 보면 4,000가구보다 많아지므로 작성 통계는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구원 관점에서는 만 19-69세를 만 13-74세로 확대하더라도 목표 가구원 수를 8,000명으로 고정한다면 기존 통계 작성 대상인 만 19-69세의 표본은 감소하기 때문에 가구원 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의 공표 영역별 상대표준오차는 조금 커지겠지만 모비율 추정 등의 모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현재 수준의 통계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표본설계가 가구원에 대한 목표 표본크기를 산출한 것이 아니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의 공표 영역 범위별 목표 표본 가구원수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표본크기 확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목표 표본 가구 수를 증가시키고 가구원 분석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 가구원 수는 고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 영역 범위별 목표 가구원 수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식의 설계 보다는 자료수집과정에서 표본 가구내 적격 가구원의 조사 참여를 높여 공표 영역 범위별 통계 안정성 유지 및 시계열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표 영역 범위별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향후 조사에서 공표 영역 범위별 시계열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목표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최소 표본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표 표본 가구 수만을 산출하고, 목표 가구원 수는 표본 크기로 설정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넷째,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되면 기존 통계에 저연령층(10대)와 고연령층(70대 초반)을 추가하는 신규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 2013년 이후 기존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만 19-69세 대상의 통계는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만 13-74세 기준의 통계를 신규로 작성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신규 통계는 조사대상이 추가된 통계로 중고생의 저연령층부터 70대 초반까지 포함되므로 인구(가구원) 기준 모집단 포함율이 82.6%가 되는 통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통계와 구분하여 조사대상이 추가된 신규 통계를 작성하기를 제안한다.

3) 자료 공개 정보의 추가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개인단위로 자료를 공개한다. 자료 공개 시 개인 가중값을 함께 제공하여 복합표본조사 자료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의 변수들을 검토해 보면, 가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표본 가구에서 무작위로 1명의 적격 가구원을 조사하는 가구원이 모두 독립인 개인에 대한 8,000명의 표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일 가구 정보 및 가구 가중값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가구 분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그 결과도 편향될 수 있으며, 또한 가구와 연계한 분석도 편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조사구 - 가구 - 가구원의 추출 과정으로 가구원이 조사에 참여하므로 해당 가구원의 가구 정보를 포함한 표본 추출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변수를 추가해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추출 과정 및 가구 정보가 제공되어 자료분석 시 동일 가구 등의 가구 정보를 반영하여 분석하도록 권유하여 분석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자료 공개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같이 가구원 자료에 대해 동일 가구 및 가구 가중값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구 단위 분석은 하지 않도록 '이용자 일러두기' 혹은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본추출 과정 및 가구원의 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개선이다. 기본적으로 가구id 혹은 동일 가구를 알려주는 변수가 추가되어야 하고, 가구 분석을 위해 가구 가중값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가구 가중값은 〈부록〉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료 공개 시 추가하여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4) 사회조사와의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진단 개선 요구사항인 연령층의 확대도 사회조사와 조사대상 연령층을 일치하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반영하여 4-2절, 4-3절에서 모집단 분석 및 표본크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의 방법과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기 보다는 사회조사와의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을 위한 간략한 구조적 개념만을 설명하여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합마이크로데이터 생성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은 관련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은 다양한 출처의 자료가 존재하고, 조사환경의 악화되어

다목적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자료, 등록자료, 다른 조사자료 등과 조사단위 관점에서 연계(linkage) 혹은 매칭(matching)을 통해 출처가 다른 자료를 결합함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사회조사를 연계하기 위한 공여 자료(donor data)는 사회조사 자료이고 수용 자료(recipient data)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조사와 사회조사의 매칭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4-2〉와 같다.

데이터	공통 (가구/개인특성)	Y (사회통합실태조사)	Z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O	O	X
사회조사	O	X	O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공통 (가구/개인특성)**	**Y**	**Z′ (매칭 자료)**

〈그림 4-2〉『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합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을 위한 구조적 개념(제안)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을 위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4-2〉를 보면, 사회조사와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매칭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두 조사 자료의 매칭을 위한 지역, 가구 특성, 개인 특성의 공통변수를 활용하거나 사회적 관심, SES(사회계층지수), 정치적 관심 등의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를 계산하여 유사한 자료를 연계하여 매칭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두 조사를 결합하면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의 효율은 높아진다.

둘째, 수용 자료인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향점수가 유사한 대상의 자료를 사회조사로부터 연계하면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주제의 자료 분석이 가능해진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가구원과 공통변수 혹은 성향점수가 유사한 사회조사의 가구원 자료를 연계하면 『사회통합실태조사』 관점에서는 일종의 심층적인 자료가 추가로 생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심층 주제에 따라 성향 점수 계산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두 조사를 결합하면 결합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높아진다.

셋째,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다목적 조사한 자료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연계된 자료의 모수 추정 등의 통계 작성이 아니라 두 자료를 연계한 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별 조사는 개별 조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설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모수 추정과 같은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출처가 다른 자료를 결합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하나의 조사 자료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결합하기보다는 두 자료를 연계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부분적인 다목적 조사자료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single-source 기반의 다목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한 것이므로 두 자료를 연계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연구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매칭 자료의 수준, 매칭 방법, 공통변수, 성향점수 산출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결합마이크로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하므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소프트적 개념의 일회성 자료(temporary data)이다. 즉,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사회조사를 매칭하더라도 연구 목적과 매칭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가 생성되므로 연구원 내부에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연구 목적을 수행하는 일회성 자료이므로 외부 공개는 불필요하므로 내부의 연구용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를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매칭하여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은 필요하므로 두 조사의 연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두 조사 자료를 매칭한 결합 마이크로데이터는 보완적 조사 내용을 측정하므로『사회통합실태조사』관점에서는 심층 주제의 자료 확보를 통해 다양한 연계분석이 가능하므로 자료 이용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사회조사와의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을 제안한다.

5) 소결

4-4절에서는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반영한 만 13-18세의 조사표 개발과 조사 기법의 개선, 시계열 일관성 및 통계 안정화 확보와 신규 통계 작성 방안, 자료 공개 정보의 추가,

사회조사와의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 및 진단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를 반영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통계품질 개선을 위해 제안한 주요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되는 저연령층(만 13-18세, 중고생)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및 가구원 조사의 응답율을 높이도록 학생용 조사표 개발, 비대면 조사의 활용, 부가조사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가구 기준 및 가구원 기준의 통계작성에 대해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일관성과 통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목표 표본크기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목표 가구원 수는 확보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표본 가구수를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기존 통계뿐만 아니라 저연령층(10대)와 고연령층(70대 초반)을 추가한 신규 통계 작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본추출 과정 및 가구원의 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가구id 혹은 동일 가구를 알려주는 변수가 추가되어야 하고, 가구 분석을 위해 가구 가중값을 추가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사회조사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수행되고, 조사 내용도 서로 보완적인 주제와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자료이므로 지역, 가구 특성, 개인 특성의 공통변수를 활용하거나 사회적 관심, SES(사회계층지수), 정치적 관심 등의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계산하여 두 조사를 매칭하는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두 조사를 결합하면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의 효율이 높아져 자료의 활용가치가 높아진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표 개선과 표본설계 변경에 대한 컨설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9년에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으로, 조사문항의 개선과 조사표 구조 진단, 그리고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선 결과와 연동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재조정에 관한 내용과 표본설계 대상과 크기 재조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표 컨설팅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에 조응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부문을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체계와 조응할 필요는 있으나 이 개편에 따라 『사회통합실태조사』 현재의 조사표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것은 조사의 시계열성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시계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사회조사〉 개편과 조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부문을 주관적 웰빙, 거버넌스,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역능성, 사회적 소통, 신뢰, 공정성, 관용성, 사회보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부문에서 포괄하는 문항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 조사표에서 '역능성'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을 '거버넌스' 부문으로 이동(문6부터 문12까지)하고 문18과 문19를 현재의 '사회참여' 부문에서 '역능성' 혹은 '사회적 소통' 부문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사표 문항별 경미한 수정사항과 관련해서는 부모님 교육 질문의 경우 문항 자체의 의미가 있으므로 질문의 난이도 체크 후 수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고, 문35의 '기관별 업무수행 평가' 문항은 질문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넷째, 신규 개발할 조사 문항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신규 지표로 포함된 '차별경험률'과 '준법수준 인식' 지표 측정을 위한 신규문항 개발과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지표와 '계층귀속감' 지표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신규문항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사회참여의 동기’나 ‘사회참여의 효능감’에 대한 신규문항 개발도 제안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의 사회지표〉와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국제비교 모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함께 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진단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한 표본설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진단한 주요 결과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모집단은 2017년에 비해 가구원수 감소, 저연령층 감소와 고연령층의 증가 등 모집단이 변화하였고, 통계청의 사회조사와의 연계 분석 및 자료 연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는 저연령층 혹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의 연령층의 확대는 저연령층(만 13-18세)과 고연령층(만 70-74세)을 동시에 확대하면 약 10%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현행 층화 변수와 기준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조사의 일관성 및 시계열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설정하다고 판단된다.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확대되더라도 조사 대상의 추가는 표본 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을 확대하여 전수 추출하므로 층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행과 동일한 층화 변수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변화된 모집단 특성, 어려운 조사환경 및 품질진단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 표본 가구수의 증가는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목표 가구원 수 8,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표본 가구수의 확대 방안만을 고려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조사대상 연령층의 확대 방안으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동시에 확대해 현재 조사대상인 만 16-69세를 만 13-74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목표 표본크기는 가구수 기준으로 4,100가구가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추가되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목표 가구원 수를 결정한다면 가구원수가 적은 고연령층 관점으로 보면 목표 표본크기는 최대 4,400가구(고연령층 기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로, 조사대상 연령층의 목표(혹은 확보) 가구원 수를 결정한다면 추가 연령층의 가구원 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표본가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넷째, 조사대상 연령층 확대를 반영하여 중고교생(만 13-18세)의 조사표 개발과 비대면조사

기법의 개선, 확보 가능한 표본 가구원 수의 응답률을 높여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일관성 및 통계 안정화 확보 방안 마련,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포함하는 신규 통계의 추가 작성 방안, 자료 공개 시 가구 관련 정보와 가구 가중값을 추가 제공하는 자료 공개 정보의 추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심층적인 연계 분석 및 자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유사성이 높은 사회조사와의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핵심적 국가 아젠다의 하나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단 간 사회갈등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여 변화 추이 분석하여 정부의 국민대통합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컨설팅 연구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질적 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부록1〉 전문가 조사 질문지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제고를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세요.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제고 컨설팅** 연구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수행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국가 간 비교 분석도 수행하여 정부의 국민대통합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팀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통계품질조사에 기반한 컨설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활용성을 높이고 현재 조사문항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수요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품질조사 컨설팅연구팀

한국조사학회 변미리· 변종석

【다음은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의 관심분야 및 활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나 자료를 **활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나 자료를 **어떤 측면에서 활용**하였는지 아래 보기에서 골라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 ① 활용한 적이 있다. □ ② 활용한 적이 없다. ☞ 4번 문항으로 이동	□ ①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 ② 업무(사업)계획 수립 □ ③ 대국민 만족도 및 업무 평가 □ ④ 참고자료 및 현황분석 □ ⑤ 연구, 학술, 학습 등 □ ⑥ 기타(세부내용:)

3.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나 자료가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아래 보기에서 골라 체크하여 주십시오.	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④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 다음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5.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0개 부문 7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구성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사영역에서 **보완이나 추가되어야 할 조사항목**이 있으면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첨부】2019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조사표」 참조**

조사영역	문항수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세부 내용	
		문항수의 적절성	**문항 수 관련 보완 또는 개선 내용**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23		
사회참여	2		
정치참여	8		
사회적 소통	7		
신뢰	4		
거버넌스	3		
공정성	3		
관용성	6		
사회보장	7		

【 다음은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표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6.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 조사항목이 조사부문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 전체적인 질문 순서가 적합한지,
- 조사항목이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포괄하는지 등

조사항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전문가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별로 의견을 적시해 주셔도 되고, 조사부문별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첨부】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조사표」 참조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Ⅰ.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걱정·우울 정도) 3문항	
	• 삶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안전성 (우리 사회, 시·군·구, 읍·면·동) 3문항	
	•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	
	•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 살고 있는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속감 •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의 가능성(본인, 자녀)	
	• 우리나라 정치 상황 만족도	
	• 5년 후 정치 상황 전망	
	•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	
	• 5년 후 민주주의 수준 변화 전망	
	• 우리나라 경제상황 만족도	
	• 5년후 경제상황 변화 전망	
	• 북한에 대한 시각	
	• 성장 v.s. 분배 중 중요한 가치	
	• 공동체 이익 v.s. 개인 이익 중 중요한 가치	
	•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목표	
	• 정책의 우선 순위 (2문항)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II. 사회 참여	• 약자를 위한 도움에 대한 당위성 판단 • 약자를 위한 도움 행위가 내게 갖는 중요성 정도 • 개인의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사회단체 참여활동 정도 (정당, 노조,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조직) 9개 항목	
III. 정치 참여	•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정부 업무에 대한 관심, 사회단체 활동, 다른사람 의견 존중, 환경지향 상품 구매, 국가위기시 군복무의지 (8개항목)	
	• 정부 정책에 관한 나의 영향력 • 정부의 일반시민 의견에 관한 관심 •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나의 인지 정도 •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일반사람의 인지 정도	
	• 정치참여 활동 (주변사람과 이야기, SNS 의견제시, 정부·언론에 직접 의견 제시, 서명운동, 탄원서 등, 시위·집회 참여, 민원, 불매운동) 8개 항목	
	• 투표 참여 (지방선거)	
	• 투표 참여 (대통령선거)	
	• 투표 참여 (국회의원 선거)	
	• 지지 정당 유무	
	• 본인의 이념적 성향	
IV. 사회적 소통	• 우리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가족, 직장, 이웃, 세대) 4개 항목	
	•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수준 (중앙정부와 국민, 국회와 국민, 지방정부와 국민, 지방의회와 국민) 4개 항목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과의 접촉 방식 (가족)	
	•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과의 접촉 방식 (가족 이외 사람)	
	• 위기 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경제적·신체적·정신적 위기) 3개 항목	
	• 개인의 감정상태 (외로움, 자살충동, 아무도 날 모름) 3개 항목	
V. 신뢰	• 일반적 인간관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 집단별 신뢰 정도 (가족, 이웃, 친구등, 처음만난 사람, 외국인) 5개 항목	
	• 기관별 신뢰 정도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공기업, 군대, 노조, 시민단체, TV, 신문,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17개 항목	
	• 기관별 청렴도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공기업, 군대, 노조, 시민단체, TV, 신문,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17개 항목	
VI. 거버넌스	• 집단 간 협력정도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정부 상호 간,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전문가집단, 정부와 기업) 9개 항목	
	• 공공서비스 경험 유무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센터, 인허가 서비스, 인터넷 민원발급, 세무, 경창, 소방, 교육, 보건 서비스) 총 10개 항목	
	• 공공서비스 만족도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센터, 인허가 서비스, 인터넷 민원발급, 세무, 경창, 소방, 교육, 보건 서비스) 총 10개 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전문가 의견
VII. 공정성	•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 총 6개 기관 평가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교육, 취업,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지역균형발전, 법집행, 정치활동, 성별대우, 언론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분배구조, 병역의무 이행) 총 12개 항목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평가 (공공정보 공개, 국민참여 확대, 행정절차 투명서, 공직청렴도, 고등교육 기회, 취업기회,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기득권 양보, 상류층 솔선수범, 중산층 확대) 총 10개 항목	
VIII. 관용성 (사회적 포용)	•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 집단별 포용성 (장애인, 조손/한부모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총 6개 집단	
	• 집단별 자녀배우자로의 포용성 (장애인, 조손/한부모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총 6개 집단	
	• 사회갈등의 원인	
	• 우리 사회 항목별 갈등 정도 (계층간, 보수/진보간, 근로자와 고용자간, 수도권과 지방간, 개발과 보존간, 고령층과 젊은층 간, 남녀간, 종교간, 내국인과 외국인간) 총 9개 문항	
	•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 정도 (교유계, 국회, 기업, 노동조합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정부, 종교단체) 총 9개 집단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IX. 사회보장	•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	
	•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종류	
	•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	
	• 중병 발병 시 대처 가능 경제력 정도	
	•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 본인의 5년 후 경제 상황 변화	
	•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여부	
X. 인구사회학적 특성문항	• 성별	
	• 생년월일	
	• 가구주와의 관계	
	• 혼인상태	
	• 교육정도	
	• 일주일 간 일자리 보유 여부	
	• 직업	
	•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하고 있었던 일	
	• 직장 내 지위	
	• 직장구분	
	• 월 평균 개인·가구 소득	
	• 해당 지역 정주 기간	

〈부록 2〉 사회조사(통계청)의 가중값 산출 방식과 추정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의 표본설계 개요

- 가구가중치
  - 설계 가중값
  - 무응답 가중값 :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무응답 보정
  - 사후층화 가중값 : 가구주 성·연령대별로 시도별 추계 가구 기준
    - Calibration: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또는 반복비례가중법(raking ratio) 등의 방법 활용

설계 가중값 $w_{hij}^{b} = \frac{M_h}{n_h M_{hi}} \times \frac{M_{hi}}{m_{hi}} = \frac{M_h}{n_h \times m_{hi}}$

(↑ 층별 표본조사구 추출률 역수, ↑ 가구 추출률 역수)

- w_{hij}^{b} : h층 i조사구 j가구의 설계가중값
- h : 설계층(17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 $h=1, \ldots, 27$)
- i : 일반조사구
- j : 가구
- M_h : h층의 인층 조사구의 총 가구수
- M_{hi} : h층 i표본 조사구의 가구수
- n_h : h층의 표본 조사구수
- m_{hi} :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가구원가중치
  - 사후층화 가중값 : 성·연령대별로 시도별 추계인구 기준

사후층화 보정계수 $w_{c,hij} = \frac{N_c}{\hat{N}_c}$

여기서

- $w_{c,hij}$: c사후층 내 h층 i조사구 j가구의 사후층화 보정계수
- N_c : 사후층 내 모집단 크기
- $\hat{N}_c$: 사후층 내 설계가중값의 합
- $c=1,2,\cdots,n$: 사후층(가구, 성 및 연령별 그룹)

- 복합표본조사 분석 기준
- 평균(비율) 기준

1) 비율(평균) 추정 : H-T(Horvitz-Thompson) 추정량

$$\hat{\mu} = \hat{p} = \bar{y} = \frac{\sum_{h}^{H}\sum_{i}^{n_h}\sum_{j}^{m_{hi}} w_{hij}\, y_{hij}}{\sum_{h}^{H}\sum_{i}^{n_h}\sum_{j}^{m_{hi}} w_{hij}}$$

여기서

- w_{hij} : h층의 i 조사구 내 j가구(가구원)의 가중값
- y_{hij} : h층의 i 조사구 내 j가구(가구원)의 관측값
- $h=1,2,\cdots,27$: 설계층(지역)
- $i=1,2,\cdots,n_h$: 조사구
- $j=1,2,\cdots,m_{hi}$: 대상가구(가구원)

2) 분산추정 : 테일러 선형근사 추정량

$$\widehat{Var}(\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여기서

-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y_{hij} - \bar{y})\right) / w_{\cdot\cdot\cdot}$
-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right) / n_h$
- $w_{\cdot\cdot\cdot} = \sum_{h}^{H}\sum_{i}^{n_h}\sum_{j}^{m_{hi}} w_{hij}$

〈부록 3〉『사회통합실태조사』의 가중값 산출 방식

출처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개요

1. 가구 가중값

○ 설계 가중치는 표본 조사구에 대한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할 수 있음

$$w_{1hi} = \frac{\sum_{i=1}^{N_h} M_{hi}}{n_h M_{hi}} \times \frac{M_{hi}^*}{m_{hi}}$$

여기서, n_h는 h층에 할당된 표본 조사구 수, N_h는 h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M_{hi}는 h층의 i조사구 내의 명부상 가구 수, M_{hi}^*는 h층의 i조사구 내의 실제 가구 수, m_{hi}는 h층 내의 i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 수를 나타냄. m_{hi}는 원칙상 10가구임

○ 무응답 조정 :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동부와 읍면부, 아파트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여 구성한 총 52개 층을 무응답 조정 셀로 간주하여 무응답 조정 과정을 거침. 각 무응답 조정 층에서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음

$$w_{2hi} = \frac{m_{hi}}{r_{hi}}$$

여기서, m_{hi}는 h층 내의 i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 수(원칙적으로 10가구)를 나타내며, r_{hi}는 h층 내의 i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냄

○ 사후층화 조정 : **(가구원 수 분포 보정)**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특성을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보정함. 통계청 2017년 등록센서스의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수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별로 보정하였으며, 시/도별 보정계수(BF_{ab})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BF_{ab} = \frac{G_{ab}}{\sum_{a}\sum_{b}(w_{1hi} \times w_{2hi})}$$

여기서, G_{ab}는 a 시/도, b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의 모집단 가구 수를 나타냄

2. 가구원 가중값

○ 표본 가구 내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조사 하지만 조사불능 및 조사불응의 사유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추출률이 상이함.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구원 추출률의 역수를 반영함

$$w_{3hij} = \left(\frac{p_{hij}}{e_{hij}}\right)^{-1}$$

여기서, e_{hij}와 p_{hij}는 각각 h층의 i조사구, j가구 내의 적격 가구원 수와 응답자 수임

○ 사후층화 보정 :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를 유사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통계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시/도별(17), 동부/읍면부(2), 성별(2), 연령대별(5)의 구성비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보정함

○ 가구원의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구원 수 분포 보정, 가구원 추출률, 사후층화 보정 계수의 곱으로 산출함

최종 가중치 = 설계 가중치 × 무응답 조정 계수 × 가구원 수 분포 보정 계수 × 가구원 추출률 역수 × 사후층화 보정 계수

〈부록 4〉『사회통합실태조사』의 추정식

출처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개요

1) 모평균(모비율) 추정

$$\hat{\bar{Y}} = \frac{\sum_{h=1}^{H}\sum_{i=1}^{n_h}\sum_{j=1}^{m} w_{hij} y_{hij}}{\sum_{h=1}^{H}\sum_{i=1}^{n_h}\sum_{j=1}^{m} w_{hij}}$$

2) 모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hat{V}(\hat{\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여기서, $f_h = \frac{N_h}{n_h}$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y_{hij} - \hat{\bar{Y}})\right] / w_{\cdots}$$

$$\bar{e}_{h\cdot\cdot} = (\sum_{i=1}^{n_h} e_{hi\cdot})/n_h$$

승 인 번 호
제 4170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명부 ID (조사원 작성)

조사표 ID (QC팀 작성)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사회통합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 본 조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승인(협의)통계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리서치(조사원)에서 기입합니다.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성명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표 기입방법
	총 ( )부 중 ( )부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 주소 및 가구원 수 정보는 가구 내 첫 번째 조사표만 기입해 주십시오.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동·호수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총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수			

발주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조사기관 HankookResearch

조사표 작성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적을 것 : _____)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해 주십시오.
- **주된 응답**은 1개만 기입해 주십시오.

Ⅰ.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부문

1-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많이 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 없다 ←	보통	→ 매우 가치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1 귀하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귀하는 **요즘**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 귀하는 **요즘**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 현재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귀하는 **5년 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보통 → 매우 좋아질 것이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귀하는 **5년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보통 → 매우 좋아질 것이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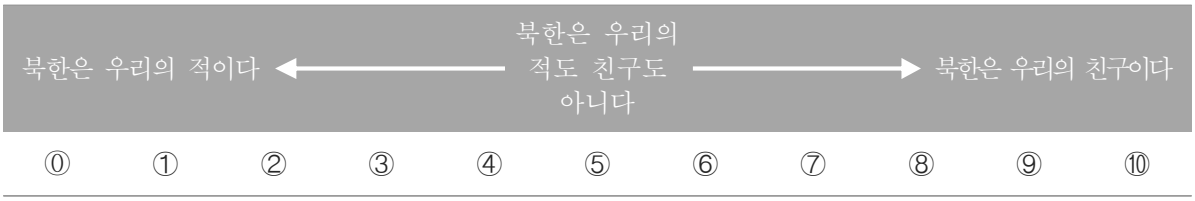
10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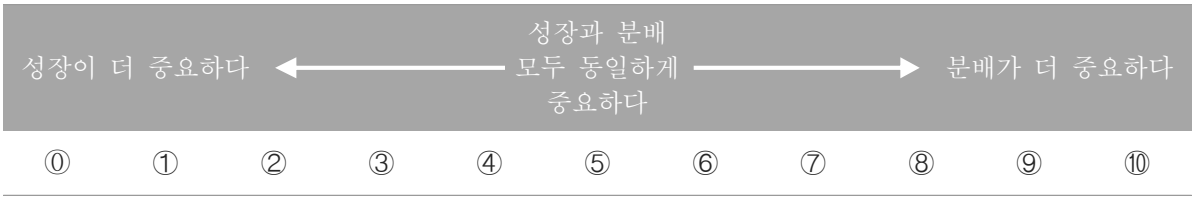
11 귀하는 **5년 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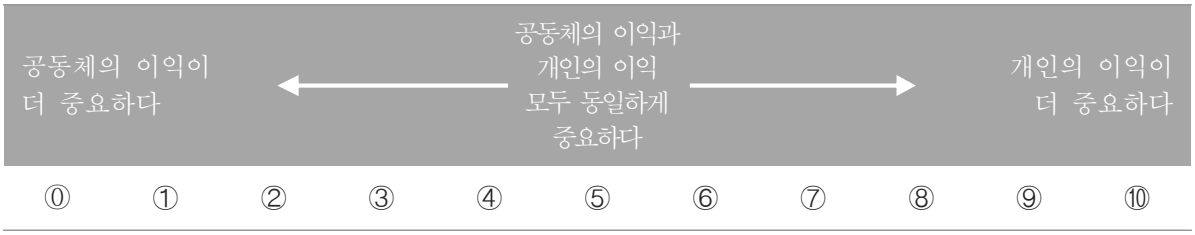
12 귀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 귀하는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번호기입	2순위	번호기입

① 고도의 경제성장
② 국방 강화
③ 직장 및 지역공동체에서의 참여 및 권한 증대
④ 도시 및 농촌의 환경보호

16 다음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번호기입	2순위	번호기입

① 국가의 질서 유지
② 물가인상 억제
③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증대
④ 표현의 자유 확대

17 다음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번호기입	2순위	번호기입

① 경제 안정
② 범죄와의 전쟁
③ 더욱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④ 돈보다는 아이디어나 이상이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Ⅱ. 사회 참여 부문

18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19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항 목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정당	①	②	③	④	⑤
(2)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⑤
(3)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4)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5)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7) 동창회, 향우회	①	②	③	④	⑤
(8)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Ⅲ. 정치 참여 부문

20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중요하다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한다 * 군인으로서 복무 등 직접적 참여뿐만이 아닌, 물자 수송, 간호 등의 간접적 참여 또한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2)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①	②	③	④
(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①	②	③	④
(4)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①	②	③	④
(5)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①	②	③	④
(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7)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①	②	③	④
(8) 불매운동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23 귀하는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24 귀하는 지난 2017년 5월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25 귀하는 지난 2016년 4월에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26 귀하는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보수적 ② 다소 보수적 ③ 중도적 ④ 다소 진보적 ⑤ 매우 진보적

Ⅳ. 사회적 소통 부문

28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가족 간 소통	①	②	③	④
(2) 직장 구성원 간 소통	①	②	③	④
(3) 이웃 간 소통	①	②	③	④
(4) 세대 간 소통	①	②	③	④

29 귀하는 정부와 국민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	①	②	③	④
(2) 국회와 국민 간 소통	①	②	③	④
(3)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민 간 소통	①	②	③	④
(4)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와 국민 간 소통	①	②	③	④

30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접촉이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귀하와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명 이상

→ **30-1**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① 전화
② 우편
③ 인터넷
④ 대면
⑤ 문자(SMS)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① 이메일
②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③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등)
④ 블로그
⑤ 카페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19명
⑥ 20~49명
⑦ 50명 이상

→ **30-2**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① 전화
② 우편
③ 인터넷
④ 대면
⑤ 문자(SMS)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① 이메일
②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③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등)
④ 블로그
⑤ 카페

3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항 목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3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롭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Ⅴ. 신뢰 부문

33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별로 믿을 수 없다 ③ 약간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34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가족(친척 포함)	①	②	③	④
(2) 이웃	①	②	③	④
(3)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①	②	③	④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①	②	③	④
(5) 국내 거주 외국인	①	②	③	④

35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항 목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2) 국회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검찰	①	②	③	④
(5) 경찰	①	②	③	④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①	②	③	④
(7) 공기업	①	②	③	④
(8) 군대	①	②	③	④
(9) 노동조합단체	①	②	③	④
(10)시민단체	①	②	③	④
(11)TV방송사	①	②	③	④
(12)신문사	①	②	③	④
(13)교육기관	①	②	③	④
(14)의료기관	①	②	③	④
(15)대기업	①	②	③	④
(16)종교기관	①	②	③	④
(17)금융기관	①	②	③	④

36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2) 국회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검찰	①	②	③	④
(5) 경찰	①	②	③	④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①	②	③	④
(7) 공기업	①	②	③	④
(8) 군대	①	②	③	④
(9) 노동조합단체	①	②	③	④
(10)시민단체	①	②	③	④
(11)TV방송사	①	②	③	④
(12)신문사	①	②	③	④
(13)교육기관	①	②	③	④
(14)의료기관	①	②	③	④
(15)대기업	①	②	③	④
(16)종교기관	①	②	③	④
(17)금융기관	①	②	③	④

Ⅵ. 거버넌스 부문

37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	①	②	③	④
(2) 중앙정부와 국회	①	②	③	④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①	②	③	④
(4)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①	②	③	④
(5) 지방정부 상호 간	①	②	③	④
(6) 여당과 야당	①	②	③	④
(7) 정부와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8) 정부와 전문가집단	①	②	③	④
(9) 정부와 기업	①	②	③	④

38 귀하는 <u>지난 1년(2018. 9. 1. ~ 2019. 8. 31.)</u> 동안 다음 활동 혹은 공공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경험 했다	경험하지 않았다
(1) 공청회/청문회 참여 활동	①	②
(2) 주민참여예산 활동	①	②
(3)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서비스	①	②
(4) 인허가 서비스	①	②
(5)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①	②
(6) 세무 서비스	①	②
(7) 경찰 서비스	①	②
(8) 소방 서비스	①	②
(9) 교육 서비스	①	②
(10)보건 서비스	①	②

38-1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활동 혹은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Ⅶ. 공정성 부문

39 귀하는 다음 기관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행정기관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2)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한다	①	②	③	④
(3)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4)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①	②	③	④
(5)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①	②	③	④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40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2) 취업 기회	①	②	③	④
(3) 과세 및 납세	①	②	③	④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①	②	③	④
(5) 지역균형발전	①	②	③	④
(6) 법 집행	①	②	③	④
(7) 정치 활동	①	②	③	④
(8) 성별에 따른 대우	①	②	③	④
(9) 언론 보도	①	②	③	④
(10)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①	②	③	④
(11)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①	②	③	④
(12)병역 의무 이행	①	②	③	④

41 귀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음 방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공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직청렴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상류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Ⅷ. 관용성(사회적 포용) 부문

42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다 ←					보통				→ 매우 많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3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항 목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 조손/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4) 전과자	①	②	③	④	⑤
(5) 동성애자	①	②	③	④	⑤
(6)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①	②	③	④	⑤

44-1 그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 조손/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4) 전과자	①	②	③	④	⑤
(5) 동성애자	①	②	③	④	⑤
(6)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①	②	③	④	⑤

45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번호기입]　　2순위 [번호기입]

①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②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③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④ 빈부격차
⑤ 권력 집중
⑥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⑦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⑧ 기타(적을 것 : _____)

46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1)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2)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3)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4)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5)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6)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7)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8)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9)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47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다음 집단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1) 교육계	①	②	③	④	⑤
(2) 국회	①	②	③	④	⑤
(3) 기업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조합단체	①	②	③	④	⑤
(5) 법조계	①	②	③	④	⑤
(6)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7) 언론(신문, 방송)	①	②	③	④	⑤
(8) 정부	①	②	③	④	⑤
(9)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	①	②	③	④	⑤

48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번호기입

2순위	번호기입

① 교육계
② 국회
③ 기업
④ 노동조합단체
⑤ 법조계
⑥ 시민단체
⑦ 언론(신문, 방송)
⑧ 정부
⑨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

Ⅸ. 사회보장 부문

49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공적연금	①	②
(2) 개인연금	①	②
(3) 국민건강보험	①	②
(4) 개인의료보험	①	②
(5) 고용보험	①	②
(6)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①	②

49-1 그럼,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보훈연금
⑦ 기초연금
⑧ 기타(적을 것 : _____)

50 귀하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②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③ 약간 준비되어 있다
④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51 귀하는 중병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다소 부족하다
③ 다소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52 귀하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					보통					→ 매우 안정적이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3 귀하의 **5년 후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보통					→ 매우 좋아질 것이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4 귀하는 **지난 1년(2018. 9. 1. ~ 2019. 8. 31.)** 동안 다음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있다	없다
(1)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2)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①	②
(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곤란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 타의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5)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6) 집세(월세,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	①	②

개인 관련 사항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2 귀하의 실제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① 양력 ② 음력 □□□□ 년 □□ 월

D-3 귀하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 쪽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
⑨ 기타 친·인척
⑩ 기타 동거인

D-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동거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D-5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은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학교	졸업여부
본인	번호기입	번호기입

	학교	졸업여부
아버지	번호기입	번호기입

	학교	졸업여부
어머니	번호기입	번호기입

학교	졸업여부
⓪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① 졸업
② 중학교	② 재학
③ 고등학교	③ 수료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④ 휴학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⑤ 중퇴
⑥ 대학원 석사 과정	
⑦ 대학원 박사 과정	
⑧ 모름	

D-6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도 '① 예 – 일을 하였다'에 해당됩니다.

① 예 → **D-7**

D-7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 후 D-9 항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D-8**

D-8 그럼, 그 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① 구직활동
② 발령대기
③ 육아
④ 가사
⑤ 정규교육기관 통학
⑥ 입시학원 통학
⑦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⑧ 취업준비
⑨ 진학준비
⑩ 연로
⑪ 심신장애
⑫ 군입대 대기
⑬ 결혼 준비
⑭ 쉬었음
⑮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 후 D-11 항으로 갈 것

D-9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고용 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상용 : 1년 이상, 임시 :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 : 1개월 미만).

① 임금근로자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D-10 귀하의 현 직장은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② 공기업 ③ 민간기업 ④ 비영리기관 ⑤ 해당 없음

D-11 귀하가 만 14~18세일 무렵, 부모님의 주된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번호기입

어머니	번호기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직업 없었음
⑫ 기타(적을 것 : _____)
⑬ 모름

D-12 귀하의 <u>지난 1년(2018. 9. 1. ~ 2019. 8. 31.)</u>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개인소득 및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개인소득란 및 가구소득란 모두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개인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개인소득	번호기입

가구소득	번호기입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⑩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⑪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⑫ 1,000만원 이상

D-13 귀하는 관광을 목적으로 외국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그럼, 외국을 여행한 것은 모두 몇 회 정도입니까?
약 _____회 (출국 기준)

② 없다

D-14 귀하는 현 거주지역에서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 ~ 3년 미만
③ 3 ~ 5년 미만
④ 5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D-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① 단독 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 주택
④ 기타(적을 것 : _____)

D-16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

D-17 귀하의 건강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연락번호)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 응답하신 분의 연락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날짜	2019년 _____ 월 _____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② 오후 _____ 시 _____ 분 부터 _____ 시 _____ 분 까지 총 _____ 분간 응답

에디팅(editing) 기록표

조사원	성명			
	ID			
	1차(현장)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실사감독원	성명			
	2차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자료검증원	성명			
	ID			
	검증 여부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사회통합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발 행 일 2020년 8월
발 행 인 통계청장 강신욱
발 행 처 통계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안 내

1.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구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

3.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